

www.artin.or.kr

THE ART OF INCHEON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지

예술인천

2013년 제11호
여름호



FACO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인천 항

내 마음 열어 있듯이
내 고장 항구는 불경기

허리 동기 삼인선상(三人線上)의 포구들과
황해 건너 상해에서 오는 검은 배들도
오지 못하는지 30년,

왜(倭)가 판가름하기 이전
내 고장 인천에는 미국과 그때 노국(露國) 영국(英國)
청국 불국의 영사관이 월미도와
해안포대의 감시 하에 있고,

독일의 대상(大商)과 미국의 거상들이
배다리 포구까지 물건을 흥정하려
괭이부리에서 어정거리고,



언제나 흥성거린 황금시대
터진개 선술집과 용동 권번이
사랑방이었다는 고로(古老들의 말씀들,

지금은 내외항에 군단(軍團)의 휘황한 불빛
계다짜와 마늘냄새의 청관(淸館)과 본정통(本町通)도
이제는 고층건물들이 자리한다.

그런데 내 가슴은 매웁게 얼어서
봄 여름 가을 가도 그 사계(四季)에 절기마다 더욱
차가워만 가느나.

〈「경기에총」, 1967.〉



최병구 (崔炳九)
(1924~1981)

경기과천 출생
인천일보 문화부장.
대한신문 전시판 특파원.
시사통신 중군기자.
경기신문 문화부장.
경인일보 문화부장 겸 취재부장.
경기일보 논설위원.
문충인천지부 시문과 회원.
인천문학인협회 사무국장.
예총경기도지부 이사.
1956년 동인지 「인천문학」 창간.
1959<원죄근처> 발간.
한국문인협회 인천지부장.
1966년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부장.
경기도 문화상 수상.
1981년 <버리고 간 노래> 유고시집으로 발간.

촬영 : 사진작가 오인영





검여(劍如) 유희강(柳熙綱)

표지제호 · 글빛 박학남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심사역임
수원대학교미술대학원 서예전공 겸임교수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이사
남동구문화예술회 회장
한국신지식인
빛갤러리 대표

발행/편집인 | 김재열

기획 · 주관 | 김학균

편집, 취재 | 이관형/고 춘/김순희
김문광/장서정/방은정

발행일 | 2013년 8월 1일

발행처 | (사)한국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402-812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안길 78
(인천문화회관 2층)

전화 | 032)873-5174, 872-7873

팩스 | 032)872-5551

홈페이지 | www.artin.or.kr

이메일 | artincheon@nate.com

펴낸곳 | 진원디자인프린텍

정가 | 8,000원

영혼을 맑게하는 예술전문잡지 『예술인천』은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예술인천』에 실린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사)인천예총에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 및 복제를 금합
니다.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지

예술인천

2013년 제11호
Contents

창을여는 詩

인천 향 | 최병구 4

커버스토리

검여 유희강 6

지상갤러리, STORY

수줍은 미소 | 박진이 8

자작나무 숲 | 오영애 9

그리운 날에 | 전미랑 10

motive1, 2 | 박난경 11

Going together, 2013 | 김가빈 12

국화 | 송덕성 13

추억 | 최명자 / 봄 | 이민자 14

소녀 | 조영란 15

인연1 | 김상순 16

natural + butterfly | 김진경 17

북한산의 봄 | 황연옥 18

자연 | 김동순 19

2013 나빌레라 | 서경애 20

봄맞이 | 강해순 21

實 | 강난주 22

추억 되새기기 | 채광희 23

화성풍경 | 이현천 24

향수 | 정근화 25

발간사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 김재열 26

기획조명

검여 유희강 선생의 예술과 인간 | 조우성 29

THE ART OF INCHEON



Today Click

극단 훈무대 고 춘	36
인음(仁音)예술단 구인숙	40

Today 이슈

토요상설공연을 마치며 이배원	46
영상미를 추구하며 35년의 「인천사우회」 김수정	50

The ART of INCHEON

우수레퍼토리 공연, 그 오십일간의 여정 김문광	54
인천무용제 김주성	61

연재

인천의 인물을 찾습니다 김진국	68
--------------------------	----

문학

해당화를 찾습니다 이상은	76
나팔꽃 김민채	77
빨강물고기 박기을	78
송학공원에서 김미옥	79
여름 월미도 김우섭	80
내 사랑 연안부두 김수영	81
실연 이연숙	82

인천의 이야기

길에서 묻다, 흔적 김학균	84
------------------------	----

Review & 협회

.....	90
-------	----

편집후기

.....	10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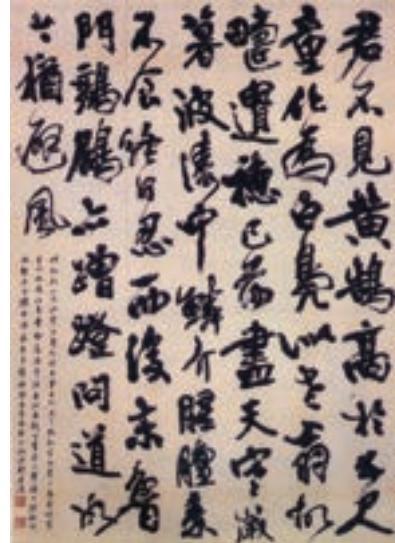


COVER-STORY

• 검여(劍如) 유희강(柳熙綱) •



- 1911 인천출생
- 1937 명륜전문(현 성균관대) 졸업
- 1939~40 북경 동방 문화학회에서 서화 금석학 연구
- 1943~45 상해미술연구소에서 서양화 연구
- 1953 제2회 국전에서 서양화 〈염(念)〉과 서화, 〈고시(古時)〉로 입선
- 1954 인천시립박물관장
- 1956 한국미협 중앙위원
- 1959 국전 초대작가, 1회 개인전(이후 76년까지 6회 개인전)
- 1961~66 국전 심사위원 6회
- 1962~70 인천교대, 홍익대, 서라벌 예대 등에 출강
- 1972 서울시 문화상
- 1975 검여 유희강 서예집 1집 발간
- 1976 대구 시립박물관 초대전 후 10월 19일 작고
- 1977 유작전(현대화랑)
- 1979 문화훈장 추서
- 1983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유작전
- 2006 인천문화재단 기획 「검여유희강선생서거30주년기념특별전」



두보시백부행 (1983 임창순 발(跋))

검여(劍如) 유희강(柳熙綱)(1911~1976)은 서구 인천동에서 출생 명륜전문학교를 졸업 했다.

1939년 중국으로 건너가 서화및 금석학을 연구했다. 1952년 창립된 국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초대작가,심사위원을 역임. 국필이란 칭호를 얻고 1968년 좌수서로 다시한번 서예계를 놀라게 한다. “서예를 통한 사람의 잠꼬대의 참소리 같은 것” 이라고 일종은 표현했다.

추사 이후 명필 검여 선생을 금번호에 모셔 기리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지상갤러리, STORY

인천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기를 바라는 욕심은 넘쳐도 과할 것이 없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물류의 도시 인천이 가야 할 길은 멀다. 그 먼 길에 인천의 인문학은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예술이 바로 이 인문학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듯 한 해에 가장 주목 할 만한 전시예술이 걸어온 길을 열어 보고자 한다. 각 협회마다 내세울 가치의 보고는 분명히 있다. 공연예술은 공연예술대로 정지된 몸짓이 있고 시각의 장르는 그만의 story가 있다.

금번 지상갤러리는 “한국여류화가회” 회원들의 작품을 올린다. ‘여성비엔나래’가 여류를 대표하는 행사였으나 개최하지 못하는 불운이 있어 아쉽다.

화력과 연륜의 작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차원에서 지상전을 연다.

-편집자 주-



수줍은 미소



박진이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회화와 동양화 졸업
- 개인전 3회(한성대학교 A&D Gallery, 북경, 나무갤러리)
- 문인화정신의 한미음전(공평아트센터)
- 대한민국청년미술제(대구문화예술회관)
- 꽃그림 10인 특별초대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Incheon Art Fair 인간, 바다, 바람(인천중앙문화예술회관)
-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새빛오름 갤러리 개관초대전(인천동방중학교)
- Pre -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다양속의 조화"(신세계 갤러리)
- Passion of Koera Youth Artists Festival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세종문화회관)
- 인천-하와이 국제미술교류전(Honolulu Hale Courtyard Gallery)
- 한국화대제전 "쪽빛하늘에 나래를 퍼다"(종합문화예술회관)
- 현 한국미술협회, 인천여성작가연합회, 인천한국화회, 강화미술협회 회원



자작나무 숲



오영애

- 개인전 22회
- 국내외 단체전 300회
- 인천예술인상

- 현 인천미술 초대작가회 부이사장
상명회, 한국화여성작가회, 원소회, 청토회
일수회, 한국미술협회, 인천여성작가연합회 회원



그리운 날에



전미랑

- 여백전, 일수회전, 백령전
- 인천여성 작가전, 한국화대전(한국, 일본)
-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 2006, 북경, 천진 올림픽기념 기획전
- 인천한국화전(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 인천여성비엔날레, 아시아여성비엔날레 등 다수출품
- 현 일수회, 여백회, 백령회, 인천여성작가연합회
인천한국화회 회원, 뜰아래 잣나무 회원
계양고등학교 교사



motive1, 2



박난경

-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졸업
- today seoul전
- 한국화 물성과 시대정신전
- seoul biennale전

- 한국의 자연전, 한국화 100인전
- indonesia bali
- world cup기념 한일 국제교류전
- 북경국제예술박람회전



Going together, 2013



김가빈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 개인전 12회 및 단체전 다수

- 한국미술협회 홍익여류학회 사유와감성전 그룹터
- 서울여류화가회 재인홍익동문회회원 한국화여성작가회
- 인천여성작가회 인천한국화회 전업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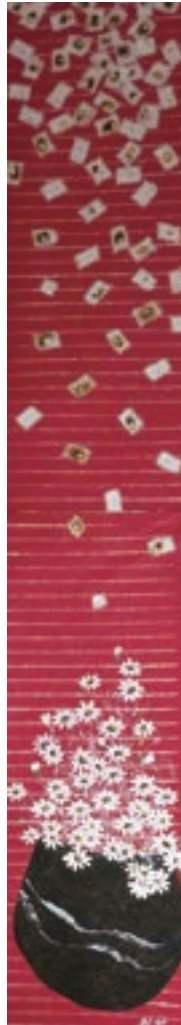
국화



송덕성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 동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동양화 전공) 졸업
- 한국화 단면전, 한국화 그 다변성전, 여류 신수화전
- 홍익여류한국화회전, 일수회전, 인천광역시 초대작가전
-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참가
- 인도네시아 발리 국립박물관전
- 인천·하와이 교류전

- 스웨덴 현대 미술전, 스페인 현대 미술전
- 뉴욕 캠프리지 갤러리 초대전
- 한·일미술교류회전, 솔갤러리 개관 기념 초대전
- 현 한국미술협회, 일수회, 인천한국화회, 인천광역시 초대작가회, 홍익여류한국화회, 한·일미술교류회 운영위원, 인천여성작가연합회,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운영위원장



추억



봄



최명자

- 개인전 4회 및 부부전 4회, 부스전 6회
- 초대전, 기획전, 단체전, 국제전 190여회 출품
- Art2010(미술과비평)
- 인천플랫폼 창고세일전(2011)
- A&C 2011 서울아트페어(2011)
- 인천한국화대전, 인천미술대전 운영위원역임
- 현 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미술초대작가, 인천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 원소회, 한국여성작가회, 일수회, 동상이몽전, 인천여성연합회, 인천한국화회, 규방가사전, 연수구미술협회 회원



이민자

- 인천 한국화회전(1983~2008)
- 채목화회전(1984~2009)
- 한국사생문인화연구회전(2008)
- 한국의 빛 초대전(2008)
- MBC 미국개국기념 한국미술대표작가전(2009)
- 현 한국미협, 인천한국화회, 인천남구미술협회 회원



소녀



조영란

- 개인전(서울, 인천) 및 단체전 190여회
- 인천광역시 초대작가
- 경인미술 초대작가
- 인천여성작가연합회원

- 한국전업미술가협회원
- 남동문화예술회원
- 한국미술협회원



인연1



김상순

- 개인전 7회
- 단체전 167회(국내/외)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3회

- 현 인천광역시미술대전
- 경기미술대전, 관악현대미술대전
- 경인미술대전 초대작가



natural + butterfly



김진경

-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 Cambridge gallery 초대전(New york)
- 韓國-타키국제교류전
- 日本 히로시마, 도고시마 초대전
- 仁川女性美術비엔날레 外 다수

- IAF 2008 Incheon Art Fair
-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Art Fair
- 현 갤러리진 관장, 인천카톨릭미술가회, 한국미협
인천여류한국화회, 인천미술전람회 초대작가
인천여성작가회, 인천세계도시국제교류 자문위원



북한산의 봄



황연옥

- 인천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한국화)
- 한국화 개인전 4회
-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구상 입선(서울시립미술관)
- 전국 무등미술대전 특선
-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특선, 입선
- 서울미술대상전 우수상, 특선
- 한 중 화가 교류전
- 현 한국미술협회, 원소회, 인천여성작가 연합회 회원
CQ경제미술학원장



자연



김동순

- 개인전(새빛오름갤러리, 인천평생학습관, 가온갤러리)
- 고양현대미술제(2001)
- 인천여성비엔날레(2004, 2005~2012)
- 송준일 김동순 한국화 부부전(2008)
- 경인미술대전 새로운지평전 초대작가전(1995)

- 인천광역시초대추천작가전 초대작가(1996~2011)
- 중앙현대미술대전(2009)
- 중앙대학교예술대학원예술제(2009)
- 현 한국미술협회, 연수구미술협회, 인천여성한국화회 회원
- 인천광역시미술협회초대작가, 경인미술대전초대작가



2013 나빌레라



서경애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 개인전 9회(서울, 부천, 인천)
- 초대전 및 기획전 310여회

- 현 한국미협회, 서울미협, 원소회, 인천여성연합회
국로미협한국화분과위원장, 미술심리사, 인천한국화회
국제인천여성비엔날레, 이화전문미술학원장



봄맞이



강해순

- 한국미술협회전
-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전 특선
- 뉴욕 현대미술 초대전
- 일본 한국대사관 초대전
- 인도네시아 발리 국립박물관 초대전
- 3인 3색전(나무갤러리 초대전)
- 인천 여성미술비엔날레 부스전

- 인천 여성작가연합회전
- 찾아가는 미술전
- 인천 한국현대제전
- 인천 여성한국화회전
- 인천 미술교사전 외 그룹전 다수
- 현 신송고등학교 교사



實



강난주

- 인천광역시 문화상 수상
- 한국박물관 미술관 심의위원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 현 인천여성작가연합회 이사장, 경인교육대학교 출강



추억 되새기기



채광희

- 인천한국화전(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그룹전 100여회
- 현대미술초대전, 한중교류전, 한독현대미술전
- 부평구 정선작가 10인전, 한국화대제전(한국, 일본)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 초대전
-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하와이 이민 100주년 기념초대전
- 아시아여성미술비엔날레, 환경과 미술의 만남전
- 대한민국미술시간 KAF2005(코리아 아트 페스티벌)
- 솔 갤러리 개관초대전
- 인천미협 한국화분과 이상, 환경미술협회 부지회장, 인천 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한생미술실기대회, 제1회학생환경미술실기대회, 환경과 미술의 만남전 운영위원장 역임
- 현 한국(인천)미술협회, 일수회, 여성작가회, 인천한국화회 환경미협, 부평구미술인회, 백령회 회원
-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



화성풍경



이현천

- 인천 한국화 젊은 세대전(1997-2001)
- 한국화 대제전(2000-2012)
- 규방가사전(2003-2006)
- 인천광역시 남구 미술인 작품전(1997-2012)
- 인천미술교사전(1996-2011)
- 인천 미협전
- 진갤러리 개관 초대전

- 제1회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 인천사생회전(2002-2008)
- 2007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 2008-2012 인천 여성 한국화회 정기전
- 2010-2011 인천 여성작가연합회전
- 현 인천 여성한국화회 회원, 인천사생회 회원, 남구 미술인회 회원, 한국미협 회원



향수



정근화

- 개인전 20회
- 단체전 300여회
- 한국미술협회전, 한중/한일/한미/한 아시아 국제 미술 교류전
- 한국화대전,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구상작가전, 현대미술초대전, 경기여고 100주년기념초대전, 88올림픽기념초대전, 인천국제공항개항기념전, 신미술초대전, 인천광역시초대작가회전, 인천원로작가초대전, 남구미술협회전,

선면화전, 부평박물관개관초대전, 인천여성한국화회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개관기념초대전

- 현 인천광역시초대작가회부이사장, 인천광역시 원로초대작가, 한국화대전운영위원장역임, 인천광역시미술대전운영위원역임,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회원, 갤러리 "술"설립, 관장, 여성미술연합회회원, 남구미술협회회원, 인천여류한국화회원, 인천적십자사부회장역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한 나라의 살림살이도 어렵고 지방정부의 살림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요즘 가장 어려운 예산은 신문방송에서 보도되는 ‘복지’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먹고 입고 난 후 문화향유가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산술적 계산이다. 새 정부들어 문화예술인들을 조금이나마 위안 시키고 있는 것은 2%의 문화예산 확보 배정의 방침이다. 더 기다려 보아야 할 일이지만 고무된 우리의 표정은 많이 상기되어 있다는 사실, 헛되지 않길 빈다. 지역 계층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수립으로 문화가 융성 해 진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순 없는 것이다.

문화예술인 모두가 그 정책을 믿고 합심하여 나 갈 일이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역사는 곧 한 국가의 역사이니 만큼 지역 예술인들은 현안을 크게 확산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나이가 많은 예술인들이 속절없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 이는 곧 눈에 보이는 역사가 순간 없어지는 역사이니 만큼 복지 보다도 앞선 일이 아닌가 한다.

그 역사의 잃어버리는 무지를 범하기 전에 남기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이 요구된다. 바로 구술녹취 사업을 전개 해 보자는 것이다. 빠를 수록 좋은 일로 예산배정, 역사의 실기를 막았으면 정말 좋겠다.

아시아 살내,무도 게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문화예술계도 크

게 이바지한바 없지만 성심을 가지고 참여하게되어 대단히 기쁘다. 남은 전국체전 그리고 아시안게임, 장애인게임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중지를 모을 것이다.

금번호는 경기 스케줄에 맞추어 각 협회의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 다소 늦은 것 같다.독자 제현에게 죄송하며 이 무더위를 무탈하게 지내시길 빌며 가을호에 읽을 주제생산에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

지난호에 이어 인천의 큰 별을 모시는 표지에는 서예가 김여 유희강 선생님을 모셔 유향(遺香)의 깊이를 가늠, 인천 문화예술인들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2013. 7. 15

(사)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회장 김 재 열

기획조명 _

검여(劍如) 유희강(柳熙綱) 선생의 예술과 인간

기획연재의 변

인천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기를 바라는 욕심은 넘쳐도 과할 것이 없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물류의 도시 인천이 가야 할 길은 멀다. 그 먼 길에 인천의 인문학은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예술이 바로 이 인문학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듯 한 해에 가장 주목 할 만한 전시예술이 걸어난 길을 열어 보고자 한다. 각 협회마다 내세울 가치의 보고는 분명히 있다. 공연예술은 공연예술대로 정지된 몸짓이 있고 시각의 장르는 그만의 story가 있다.

금번 호는 인천 서예계의 거장 이셨던 검여 유희강 선생님을 모신다.

추사 이후 최고의 명필로 지칭된 선생은 左手書로서의 명성 또한 인천의 자랑이다.

-편집자 주-

검여(劍如) 유희강(柳熙綱) 선생의 예술과 인간

글 · 조우성 시인 ·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2005년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사람으로 치면 이순(耳順)이 되어 인생을 반추해 보는 시기를 맞았던 것이다. 필자는 이에 착안해 그해 4월 ‘인천 문화예술계의 이순’에 초점을 맞춰 지난 날 60년간의 인천예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용기만 앞세웠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시도였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연 전시회의 명칭은 ‘인천문화예술60년전(仁川文化藝術60年展)’이었다.

혼자서 벌인 일이라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전시장에는 문화 예술계의 원로, 선배, 후배와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와 주셔서 격려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았

다. 연전에 작고하신 한 원로 여류화가는 눈시울을 적시면서 ‘이 같은 전시회를 마련해 주어 고맙다’는 과분한 말씀을 해 주셨고, 몇몇 분은 전시장을 서너 차례 나 다녀가시기도 했었다.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해 주신 말씀은 대충 이랬다. “이 자료들은 모두 인천 문화예술의 산 증거다. 인천시나 지역의 문화재단 등이 나서서 이를 토대로 한 ‘인천문화예술기념관’ 같은 상설 전시관을 마련했



연화도와 한사언시 (1966 원종식 소장)

으면 좋겠다. 몇몇 자료들은 이미 삭아서 그 보존 대책이 시급한 것 같다. 40~50년대의 자료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만도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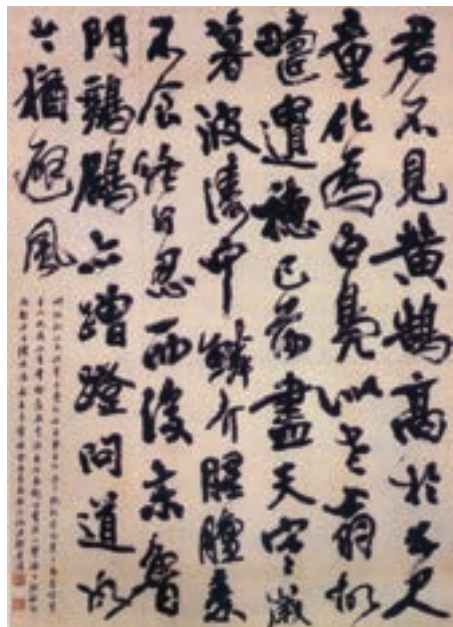
전시장에는 백발이 성성한 원로들의 추억 속이나 펼쳐져 있을 각종 자료들이 누렇게 빛 바랜 얼굴로 관람객을 맞고 있었다. 유리장 속에 정중히 모셔져 최초로 공개된 국민 가곡 ‘그리운 금강산’의 악보 초고(草稿)가 그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미술계와 음악계의 회한한 포스터들을 화가 이철명 선생과 연주가 정홍일 선생의 배려로 수십 년 만에 다시 볼 수 있게 돼 관람객들을 흐뭇하게 하였다.

인천이 낳은 문인들의 저작물도 화려하였다. 극작가 함세덕 선생의 출세작 ‘동승(童僧)’의 초판본, 소설가 현덕 선생의 ‘집을 나간 소년’, 평론가 김동석 선생의 평론집 ‘예술과 인생’, ‘해변의 시’ 등은 국내 고서 전시회에서조차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서들인데 이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와 함께 지방 도시로서는 드물게 1950년대에 인천에서 ‘사랑의 교실’, ‘심판자’, ‘춘향’ 같은 영화들이 인천 문화예술인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소개하였고, 한글 점자를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유품과 점자책, 새얼문화재단이 제공한 우현 선생의 소형 동상(銅像)을 빨간 천에 고이 바쳐져 전시장 한가운데서 관람객을 맞이했다.

우현 선생이 인천문화예술계의 거봉이자 우리나라 미술사학계의 원류요, 그해가 바로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뜻에서였다. 서지가 신연수 씨의 협조로 우현 선생의 저서 대부분을 전시할 수 있었던 것도 큰 보람이었다. 그 후 인천문화재단이 ‘우현 탄생100주년심포지움’을 열었던 것이 기억된다.

오랜 역사를 이어온 한국사협인천지회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전국임해촬영대회 팸프렛과 지방 교향악 운동의 선구였던 인천시립교향단의 면모를 보여주는 각종 자료, 아벨서점이 출품품한



두보시백부행 (1983 임창순 발(跋))

50~60년대의 여러 잡지들, 새얼·승국·가천 문화재단의 활동상 등이 소개돼 눈길을 모았다.

그처럼 인천 문화예술계 선대들의 인간과 학문을 기리는 전시회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선대들의 후손, 친인척, 후배, 제자 등이 필자의 뜻에 동의해 고이 간직하고 있던 자료들을 흔쾌히 내 준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 서예계의 거목이신 검여 유희강 선생의 차남 유신규 씨가 필자의 말만 듣고 선생이 사용했던 도장 일습을 건네 준 일이었다. 민거라 하고 내 준 것이었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흔치 않은 용단이었다. 더불어 하도 쓰셔서 붓꼬리가 다 닳은 크고 작은 붓들과 아름다운 함에 담긴 인주, 손때가 묻은 문방구(文房具) 유품 일체는 전시회의 하일 라이트였다.

작곡가 최영섭 선생의 국민가곡 ‘그리운 금강산’의 악보 초고, 우현 고유섭 선생의 저서와 새얼 문화재단이 제작한 우현 동상의 소품, 검여 선생의 작품과 생전의 체취를 느끼게 하는 유품들은 그분들이 다 그 옛날 인천시 중구 신포동 일대에서 활동했던 문화예술인들이었음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검여 선생이 태어나신 곳은 지금의 서구 시천동이다. 1911년 출생 이후 유소년 때 한학과 서예를 익힌 후 24세 때 서울 명륜전문학원에 들어가 신학문을 배웠다. 1938년 중국으로 유학을 가 중국 서화와 금석학을 공부하는 한편 여러 신문사 기자, 도서관 근무, 상해미술연구소 연구원 등을 지내다가 1946년 귀국해 시천동 본가에 머물렀다.

이듬해 인천성인교육회 서곶지부 교육부장을 시작으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해 인천예술인협회 창립, 문충구국대 집행위원이 되어 활동하다가 1952년 박세림, 장인식과 대동서화동연회를 조직하고 서예 운동에 나서는 한편 인천시립박물관장(1954년), 인천한미문화원장, 인천시고적보존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그 같은 사회활동과 함께 1955년 제4회 국전에 서예 ‘칠언대련’을 출품해 특선을 받아 서예가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듬해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열린 제6회 미협전에 유화 ‘농구(農具)’를 출품했는데, 그



념(念) (1953 제2회 국전 출품작)



유좌마도찬 (1964 이명규 소장)

것을 마지막으로 양화를 겸해 활동했던 이전까지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고 서예에만 몰두했다.

그 후 인천문충 인천지부장, 인천시립박물관장을 역임하면서 인천문화원, 인천상의 전시실, 은성다방, 세븐다방 등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한국 서단의 중심인물로 우뚝 서 1963년 국전에서는 서예

분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전시장 한 곳이 없어 다방을 전전하며 작품전을 열었던 검여 선생에게 인천 지역은 점차 협소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선생이 1962년 말 서울의 유명한 고서점 ‘통문관’ 건너편 관훈동 112번지 2층 건물에 ‘검여서실(劍如書室)’을 낸 것은 바로 그런 예술인으로서의 갈증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왜 하필이면 서실이 통문관과 지척지간이었을까 싶지만, 통문관 주인으로 우리 국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검로 선생의 말을 들어 보면 이해가 간다.

검여 선생과 산기(山氣) 이검로 선생이 처음 만난 것은 검여 선생이 인천도서관장과 박물관장을 겸임하고 있던 1954년경이었다고. 검여 선생이 필요한 서책을 찾아 종종 통문관엘 들르고, 연배가 비슷한 산기 선생도 가끔 인천 도서관을 왕래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게 7~8년 왕래한 처지라 ‘검여서실’이 문을 열자 조석으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차와 음식을 나누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우정도 두터워졌다는 이야기이다. 산기 선생의 교유 후일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저서 ‘통문관 책방 비화’에 고스란히 소개되어 있다.

“검여의 산부동 해무량(山不動 海無量)의 그 높고 깊은 대인 군자풍의 심정을 나는 헤아릴 수도 없었고, 더구나 서예나 학문의 실력은 나의 둔안천재(鈍眼淺才)로써는 전혀 이해치 못했던 것이 사

실인데, 1964년 10월 소공동 중앙공보관에서 검여의 제2회 개인전에 출품한 유석암(劉石庵) 서풍의 행서 소품 ‘양류풍오동월 파초구매화설(楊柳風梧桐月 芭蕉句梅花雪)’을 보고, 글씨와 검여의 표현할 수 없는 매력에 심취하게 되었다.”

검여 선생의 서예와 학문을 더 뭐라 찬타날 수 있을까 싶은 산기 선생의 헌사와 함께 1968년 9월 뇌출혈로 우반신(右半身)의 몸이 되었으나 불굴의 예술혼을 발휘하여 1969년 6월 제5회 한국서예전에 좌수서(左手書)의 첫 작품 ‘주감가경전(酒酣歌耕田)’을 출품해 검여 선생을 아끼는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동료, 후학의 존경과 찬사를 받았고, 그 후 우수서 못지않는 여러 수작을 남겼던 것이다.

1969년 가을에는 인천 은성다방에서 개최된 제2회 오소회 전에 좌수서를 출품해 인천의 선후배들에게 자신의 건재를 알렸고, 1975년 8월 30일에는 중앙동 제물포화랑에서 23점의 작품으로 1960년 은성다방 이후 16년 만의 인천 개인전을 가졌다. 그 이듬해 10월 18일 검여 선생은 재발한 고혈압을 이기지 못하고 별세하셨고,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에서 영면하시고 계시다.

추사 이후 우리나라 서예계에 큰 자취를 남긴 검여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선생의 예술세계에 대한 찬탄은 익히 들어 왔으나 선생의 인간적 면모를 전한 글은 쉬 만나기가 어렵다. 필자는 대학시절부터 무슨 햇바람에 인사동 ‘통문관’을 무시로 드나들었던 처지였고, 그런 연으로 육척 장신에 맘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상이신 산기 이검로 선생이 1987년에 40여 년간 고서점을 하면서 쌓아둔 이야기를 모아 ‘책방비화’란 책을 냈을 때 손수 ‘저자 근정’이라고 써 주신 귀한 책을 받아들 수 있었다.

감격한 나머지 집에 와 그 밤으로 책을 읽었고, 산기 선생과 검여 선생의 우정과 ‘통문관’의 대리석 현판이 검여 선생의 글씨임을 알게 되었다. 또 검여 선생의 말씀으로 일면식도 없었으나 우현 선생을 흠모하게 되어 1993년 자비로 전 4권의 ‘우현 고유섭 전집’을 냈던 출판 야화도 알 수 있었다.

필자가 산기 선생 말년에 이따금 통문관엘 들르면 선생께서 반겨 주시던 일이 떠오른다. 동시에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중정문 (유소영 소장)

찾아본 검여 선생의 인간적 면모를 밝혀 적으신 글을 가슴이 고이 품지 않을 수 없다. 기교로서의 예술적 경지는 누구나 수십년을 갈고 닦으면 어느 정도 도달할 수는 있으나 예술가로서의 품격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예술과 인간이 서로 어긋나 있을 때 보여주는 처참한 물결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 보기 역겨운 것이다.

‘통문관 책방 비화’에 나타난 검여 선생의 이모저모를 인용하면서 이 글을 끝내는 소이는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예술계가 ‘예술 따로, 인간 따로, 제 각각’인 동시에 서로가 ‘문화 권력’ 연하며 치기와 속기로 세상을 속이고 있는 현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검여의 얼굴에서는 항상 봄바람 같은 훈훈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으며 털끝만큼도 노기를 띤 적이 없고, 언제나 과묵은 공(寡黙溫恭)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단점을 들추는 말을 듣지 못했으며 신의와 겸허가 있고, 절대로 아만(我慢)과 교기(驕氣)가 없어 누구나 초면일지라도 십년지기처럼 금방 친숙해질 수 있는 매력적 인간이었던 것을 누구나 감지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요구하면 주되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무의호방하고 고고한 사불범정(邪不犯正)의 기풍은 사람을 사로잡는 위풍으로 번쩍이었던 것이다. 사제 간에서도 검여는 지란(芝蘭)의 향훈으로 제자에게 감화를 주었으며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훈도했기에 그 스승에 그 제자로 스승을 지극히 받들고 공경할 줄 아는 많은 제자들이 문하에서 기라성 같은 화광(和光)을 빛내고 있다.”



이적무의 칠언대련

Today click! 탐방

- 극단을 찾아서(한무대)
- 인음(仁音)예술단

인천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기를 바라는 욕심은 넘쳐도 과할 것이 없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물류의 도시 인천이 가야 할 길은 멀다. 그 먼 길에 인천의 인문학은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예술이 바로 이 인문학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듯 한 해에 가장 주목 할 만한 전시예술이 걸어온 길을 열어 보고자 한다. 각 협회마다 내세울 가치의 보고는 분명히 있다. 공연예술은 공연예술대로 정지된 몸짓이 있고 시각의 장르는 그만의 story가 있다.

금번 호의 극단은 <한 무대>이다. 인천연극의 극단으로 한 축을 빛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리고 음아 예술단으로는 '인음음악예술단'을 찾아 보았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연에 참여(관객)하는 향유의 길을 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연극을 좋아하는 시민들과 함께 큰 무대, 큰 마당을 꿈꾼다 극단 훈무대

글·고 춘

요즘 사람들 참 바쁘다. 너도나도 바쁘다 한다. 노인들도 어린 아이들도 바쁘고, 시골 농군도 도시 사람도 바쁘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전철을 타면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모든 정보와 통신,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찾고, 보고 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서로 격리된 섬들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버려야한다. 그리고 떠나야한다. 그 버리고 떠나서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연장이다. 사람의 땀 냄새가 물씬 묻어나는 연극 공연장을 찾아보는 것. 지금까지의 노트를 접고 다른 노트를 펴는 설렘이 있다. 인천에 연극을 좋아하는 시민들과 함께 큰 무대, 큰 만남의 마당을 꿈꾸는 이들이 있다. ‘극단 훈무대’을 찾아가 본다.

2001년 15명의 배우, 연출가, 기획, 무대, 조명, 음향 등 전문가들이 모여 만들었다. 창단 단원 명단을 살펴보면, 연기자로는 최성민(음향), 오영준, 오정화, 주여종, 손인찬, 이병철, 김양욱. 조명 박석광, 기획 김환.

그러나 이 극단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 인물 한 사람을 먼저 만나야 한다. 그가 바로 극단 대표이면서 배우이기도 하고, 무대를 만드는 은근한 열정을 가진 사람. 최종욱 씨(1957년생). 극단 사무실은 수봉공원 예충회관 건물 지하, 영화인협회를 마주보고 있다. 사무실 안에는 여러 소품, 공연자료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었다.

최종욱 대표는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무대 감독직도 맡고 있다. 그 전에는 인천경동예술극장(1984년), 서울 극단 대중에서 연극배우로서 기량을 다지고, 인천미추홀극단 배우로서 전국연극제에 참여하여 ‘아버지의 침묵’에 출연 대통령상을 받고(1990), 이어 인천시립극단 창립단원으로 위촉되어(1990) 인천 연극 무대와 청소년연극 지도 강사로 젊은 시절을 불사르고 48세의 나이에 총각 딱지를 떼어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충실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후배들에게로 중심이 옮겨집니다. 그동안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배우의 자존심으로 노력해왔는데, 이제는 연극관의 미래가 불투명한 요즘, 연극계의 비전을 후배들에게 열어줘야 한다는 중압감이 밀려옵니다. 한 때 인천은 여타 지방보다 예술적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나 지금은 열등한 수준으로 처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은 것이, 빛이 많은 인천의 경제 상황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는 인천 예술계의 현실을 보는 것 같다. 그의 희망사항은 무엇일까. 한 순수 장르의 예술인으로서 관객들에게 좋은 작품을 연출, 기획하여 그 작품에 맞는 무대를 만들고, 알찬 공연을 인천의 연극 애호가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희망사항을 어렵게 한다. 물론 제작비가 늘 문제되는 것이다.

극단 혼무대는 정통 연극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인천 시민들과 함께 ‘연극의 일상화’, ‘웃음의 일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요즘의 대중은 TV드라마나 복합상영관 등에서 상영되는 대형 영화 등을 보다보니 눈높이가 높다. 사람의 귀는 보수적이고, 눈은 언제나 진보적이라는 말이 있다. 음악은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처럼 그 취향을 바꾸지 않지만, 연극, 영화, 무용 등을 보는 대중들은 취향의 다양성, 새로운 시각을 끊임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중들과 연극이 친해지려면



피 말리는 고민과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극단 혼무대 뿐이 아닌 모든 무대 공연 종사자들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와중에 기존 정서를 흔드는 상업연극을 배척하고 철학적 사색과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무대로 ‘현장의 감동’을 시도하는 혼무대의 노력이 과연 일 만큼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연극인들을 이제 직업인으로 보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면 당연히 식사 값을 치룹니다. 그런데 많은 제작비를 들인 연극 관람은 늘 초대권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연 후 정말 감동 깊게 잘 보았다는 칭찬은 입을 마르게 하면서, 예술인들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한다고 이구동성 말하면서도, 이런 풍토는 잘 바뀌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관련기관에서도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공짜 의식을 조장하는 면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행정기관이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합니다. 이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후배 연극인들에게 더 넓은 곳으로 나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극단 혼무대가 그동안 제작한 주요 작품을 열거해본다.

- 창단공연 ‘색시공’ (2002년) - 2003 인천연극제 무대미술상
- ‘가출기’ (2004년)
- ‘느낌, 극락같은’ (2006년) - 인천연극제 장려상
- ‘달아, 달아’ (2007년) - 인천연극제 대상, 대한민국 전국연극제 은상 (경남 거제)
- ‘물의 기억’ (2008년) - 전국연극제 인천 예선 우수상
- ‘아버지의 달’ (2009년) - 인천항구연극제 연기상
- ‘원숭이가 그린 그림’ (2009년)



- 창작무대 ‘학이 되어 날다’ (2010년)
- ‘운설’ (2010년) - 문학시어터 기획공연
- ‘달의 정원’ (2011년) - 대한민국 전국연극제 참가 (강원 원주)
- ‘다시 길 위에 서다’ (2011) - 인천 비타민 연극제
- ‘용서’ (2012) - 문학시어터 기획공연
- ‘능허대사랑비’ (2012) - 공주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연수 문화원 향토사 연극
- ‘무화과 꽃 피었네’ (2013) - 인천항구연극제



“평균 1년에 3~4편을 무대에 올립니다. 관객들은 좋은 작품을 볼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작품도 소홀히 할 수가 없지요. 전국에서 인천지역만큼 수상 경력이 화려한 곳도 없어요. 대통령상도 세 차례나 받았지요. 인천 연극인들이 자존심을 갖고 좋은 작품을 만들 것입니다.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연극에만 몰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천은 대한민국 근대 연극의 불씨를 지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근대식 연극 공간 협률사로부터 함세덕, 진우촌의 극작가를 배출하였고, 일제강점기에도 ‘칠면구락부’라는 극단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명배우 산실 역할을 한 인천 연극의 전통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인천 시민과 관련 기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느낀다. 최종욱 대표가 정성을 다하여 하고 있는 일이 청소년 연극 지도이고 그 사업이 성과를 보고 있어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극단 혼무대의 현재 단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연출 최종욱, 음향·연기 최성민, 연기자로 오영준, 오정화, 주여중(기획), 손인찬, 이병철, 김양욱. 조명 박석광, 기획 김환.

극단 혼무대는 2013년 항구연극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아 올해 6월 충남 예산, 홍성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전국연극제에 진윤영 작가의 창작 작품 ‘무화과 꽃 피었네’로 작품을 낸다. 최종욱 대표의 고향이 아산이나 이제 인천의 연극인으로서 참가하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인천의 소리’를 완성시켜 나간다. 20주년을 맞는 인음(仁音)예술단

글 · 구인숙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비가 어디 있는지 아
세요?”

작곡가 최영섭 선생이 지난 해 구월동 호프집
에서 필자와 맥주 한 잔 나누며 문득 던진 질문
이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 있는 ‘그리
운 금강산’ 노래비예요.” (새얼문화재단 건립)

시인 한상익(작고) 선생과 최영섭 선생 그리
고 조병화 시인도 인천 남구 (제물포역과 인천
교육대학(현재 남구청)사이)에 살았던 사람들
이다.

“비엔나에 슈베르트의 노래비가 있는 곳을
가 보았는데, 그리 크지 않아요.”

물론, 노래비 크기에 따라 음악의 위대함이
비교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에 대한 자부심은 가져야하지 않
느냐고 껄껄 웃음을 뿌리며 연신 잔을 비웠다.
그 노래비는 사실 남구에 세워져야 적절하지 않
았겠는가. 2000년 3월 인음교향악단은 이 노래
비 제막을 기념하고, 최영섭 선생의 고회 기념
연주회를 열었다.

인천 남구 송의동 수봉공원 아래 제물포 역전
건너편. 인천교육사 2층에 인음예술단이 있다.
1993년 9월 인음실내악단 창단 공연이 있었으
니 올해로 20년이 된다. 인천음악도의 산실이
자, 성장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그동안 묵묵히
수행해 온 저력을 갖고 있는, 음악 단체로만 구
성 된 예술단이다. 이 단체의 산과역과 꾸준히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열정과 재원을 투자한 이

가 바로 인천교육사 정완희 사장이다.

돌이켜보면, 인천에서 청소년교향악단을 비롯하여 여러 단체를 아우르며 ‘예술단’으로 활동한 민간단체는 미추홀아트센터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86년 11월 15일 인천시민회관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진 미추홀청소년교향악단(당시 단장 정무남, 지휘 조학현)공연이 그 시발점이다. 이후 김형태(작고)씨가 인천청소년교향악단을 창립하여 예술단의 면모를 갖추며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한 바 있고, ‘인음’이 그 뒤를 따르고 있지만, 현재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시민 친화력을 갖고 있는 민간예술단으로 인음예술단을 꼽을 수 있다.

인음예술단은 음악이 있는 밝은 사회 만들기를 목적으로 창립되어 현재 음악 형태와 연령에 따른 특성에 따라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기량 향상을 꾀하고, 시민 친화형 접근을 노력하고 있다.

단 체 명	구 성	창 단 연 주
인음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인천의 음악전공자, 30~50명	1993년 인음실내악으로 창단
인음첼비오케스트라	2012년 사회적 기업 인가	1993년 인음실내악으로 창단
인음스트링앙상블	시민참여아마추어연주단, 16명	2003년 창단연주회
인천플룻콰이어	플룻(Flute)전공자, 20여명	2005년 창단연주회
인음청소년교향악단	초·중·고등학생, 20여명	1997년 3월 창단, 70여회 공연
인음청소년플룻앙상블	인천 청소년, 14명	2007년 창단연주회
인음주니어현악합주단	초·중·고등학생, 25명	1999년 교향악단에서 분리, 창단

각 단체 지휘자

이 우 찬	서울시립대졸업. 과천첼비, 서울심포니 단원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상임단원 역임 러시아 그네신 아카데미 지휘 과정	인음청소년오케스트라 인음첼비오케스트라 인음필하모닉오케스트라
윤 상 훈	중앙대 음악대학 관현악과 졸업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상임단원 역임 이태리 A.I.Art 지휘과 졸업	인음주니어현악합주단 인음스트링앙상블
김 은 선	프랑스 파리 장 데 라 퐁테인 예술고등학교 졸업 파리 시립음악원 수석 졸업 CTS 교향악단 수석 역임	인음플룻앙상블
정 순 석	서울예고, 상명대, 대학원 졸업, 독일아헨국립음대졸업, 러시아 FESSA 연주박사과정 현재 상명대학교 관현악과 교수	인천플룻콰이어

인음필하모닉오케스트라

1993년 9월 창단한 인천의 음악전공자들로 구성된 전문클래식 연주단체이다. 당초에는 인음실내악단으로 시작하였으나 1998년 인음교향악단으로, 2004년에는 뉴인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개명하였고, 2008년 인음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8회의 정기연주회와 각종 특별연주회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통 클래식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기량을 높일 수 있는 공연과 세미클래식 등의 레퍼토리로 대중 친화적인 연주회도 함께 개최하여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지휘자: 이우찬

인음챔버오케스트라

인음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일부 선발하여 실내악단으로 1008년 창립. 다양한 지역, 다채로운 무대를 찾아 갈 수 있는 단체로, 시

민 생활권으로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6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가를 받아 더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기대되고, 지역 문화발전에 직접적인 공헌이 기대되는 악단이다.

지휘자: 이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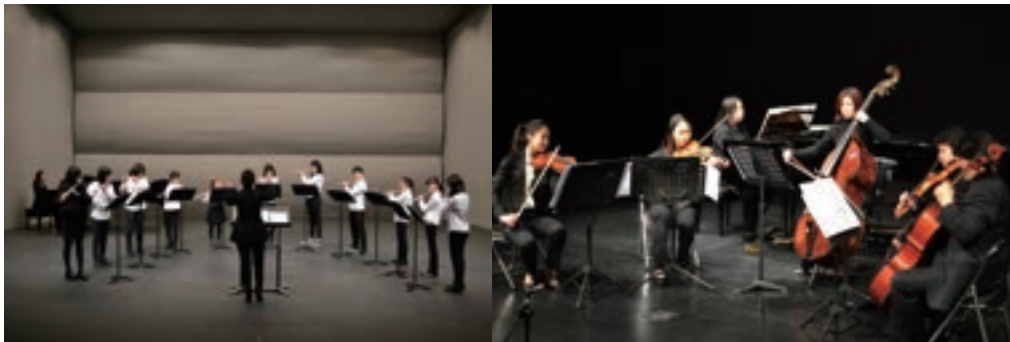
인음스트링앙상블

2003년 3월 창단한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으로 조직된 순수 아마추어 연주 단체이다. 매년 두, 세 차례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수시로 갖고 있으며, 2007년 재 창단 이후 기량 향상에 매진하여 더욱 활력 있는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주는 단체이다.

지휘자: 윤상훈

인천플룻과이어

2005년 플룻 전공자들로 구성된 연주단체. 플



롯은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취미 악기로 선호도가 높고, 청아한 음색으로 청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어 많은 음악애호가들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연주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연주단체로 10회의 정기연주회와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찾아가는 비정기 및 특별연주회를 갖고 있다.

지휘자: 정순석

인음청소년교향악단

(INEUM Youth Symphony Orchestra)

1997년 3월 15일 창단, 그해 10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교향악단. 어려서부터 교향악단 활동을 한 영향으로 1998년부터 신입생을 받은 인천예술고등학교등 예술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하는 전공생들을 배



출, 그들이 인천의 음악인, 문화예술 자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31회의 정기연주회와 각종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특별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휘자: 이우찬

인음청소년플룻앙상블

재능 있는 인천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음악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룻 앙상블. 연주 능력 향상과 연주회를 통한 자신감 배양, 시민들과 공감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서 미래 문화예술인 양성을 도모하는 데 뜻을 가지고 활동하는 연주 단체이다. 2007년 6월 창단연주회를 가졌으며, 7번의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지휘자: 김은선

인음주니어현악합주단

초·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인음청 소년교향악단에서 1999년 분리 창단. 2007년에 재정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악 앙상블의 순수한 음악세계를 경험하며, 기량향상과 특화된 연주자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지휘자: 윤상훈



인음예술단은 전공자, 비전공자, 전공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들과 취미 연주자까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열려있는 연주단체로서 다양한 수준의 연주와 내용으로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민간예술단체라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 중인 인음챔버오케스트라가 내놓은 학교, 기업, 하우스콘서트, 종교단체, 우리 동네 음악회와 협주곡의 밤 등의 야심찬 기획을 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정완희 대표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서비스(아동정서발달프로그램) 제공기관으로 인음예술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인천학산문화원 이사과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아직도 사회인식은 공적인 연주단체, 즉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한 관립 예술단만이 시민들을 위한 연주단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시장 상인들이 기금을 내어 만든 민간교향악단이고, 그와 유사한 세계적인 연주단체들은 얼마든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도 경제수준의 상승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는 난립을 걱정함에 앞서 국가가 장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예술단을 분별할 줄 아는 정책 관련자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다.

Today Issue

- 토요상설공연을 마치며
- 영상미를 추구하며 35년의 「인천사우회」

인천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기를 바라는 욕심은 넘쳐도 과할 것이 없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물류의 도시 인천이 가야 할 길은 멀다. 그 먼 길에 인천의 인문학은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예술이 바로 이 인문학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듯 한 해에 가장 주목 할 만한 전시예술이 걸어온 길을 열어 보고자 한다. 각 협회마다 내세울 가치의 보고는 분명히 있다. 공연예술은 공연예술대로 정지된 몸짓이 있고 시각의 장르는 그만의 story가 있다.

작가 나름대로의 느낌과 정신, 철학, 삶 등이 내포되어 있을 때 그 작품은 무한 의미를 갖는다.

-편집자 주-

토요일상설공연을 마치며

글 · 이배원 인천연예예술인협회 회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상상하고 그것을 빈 공간이라고 지칭해보자 어떤 사람(기획자)이 상상력의 극대화를 가지고 빈 공간을 건너가거나 앉아있어 보았다고 한다면 그 것은 빈 공간이 아니라 가능성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엉뚱한 말 같지만 이 상상만으로도 하나의 공연무대로서의 구성요건 중 장소(무대)는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빈 공간에서는 무대의 요건과 출연자, 관객 3가지가 모든 공연의 충족 요건인데 무엇보다도 먼저 시선이 가는것은 관객이다.

오늘날 모든 공연에 앞서 먼저 생각하며 계산에 넣는 것은 관객이다. 처음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을 공연마케팅이라 하며 실천적 전략수립이다.

현대사회에서 다중집합 장소로 선택되어지는 곳이 좁아져서 지루한 듯 싶어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선택하기 위하여 백화점 거리나 대형마트 그리고 공원을 선택하며 또한 버스나 열차를 이용하는 터미널을 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 예술단이나 초청된 외국공연이 아니라 ‘관광활성화’를 두고 이루어지는 기획공연은 거의 이러한 둘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각 지자체마다 문화의 저변을 위하여 또는 주민을 위하여 외지의 관객을 모아 다시 찾고싶은 지자체마다의 관광전략으로 예산을 편성 행사에 몰입하고 있다.

항구도시는 항구도시 나름대로 계회를 세우거나 내륙지방은 지방의 특성을 찾아 명분을 달고 각 지방의 특산물의 이름을 따 공연기회를 만든다. 그것이 큰 틀로 간다면 ‘축제’란 이름을 빌어 메스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다. 그 실례로 전북의 ‘지평선 축제’, 보령의 ‘머드’ 축제등 무수히 많다. 소도시는 소도시 나름(해미읍성 축제, 인천의 동구 ‘화도진 축제’) 지역 특성을 찾아 대명사화 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세수입에 맞추어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등가교환의 법칙에서 볼 때 참으로 바람직함 일이나 지역의 축제등 상설공연은 그를 뛰어넘는 문화향유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축제나 상설공연의 프로그램은 참으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곧 관객을 집객할 수있는 필요조건이 되는것은 물론 궁극증을 유발하여 앓 보고서는 못 지나칠 필연이 되기 때문이다.

인천, 그만한 역사성을 가진 도시로서 다시 부연한다면 고구려 패망이후 남하하게된 비류와 온조는 위례성(현, 하남시)과 인천의 문학에 도움을 정한 백제의 이야기로부터 기산 미추홀 2000년 아니 정확히 2030년 이다. 또한 인천이란 이름을 가진 정명 600년의 해가 2013년이며 자의든 타의에 의하여 개항된지 130년을 맞이하



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유치한 ‘살내 무도 아시안게임’의 뒤를 이어 개최(2014)되는 ‘평화의 숨결,아시아인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하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기원하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펼쳐진 상설공연이 명분을 가진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사로 인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열강들의 각축전으로 전화가 끝이질 않았던 인천항구를 주제로 열렸던 행사는 무수히 많았다. 허나 그 행사들은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돌려 미래의 교훈으로 삼고 개척하는 포맷이었다면 금번까지 4회를 거듭한 ‘토요상설공연’은 현존하는 인천 예술인들이 펼치는,듣고 보고 즐기는 담백한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둔 공연이라 할 수 있다.

금년 5월 4일 시작으로 7월 6일 까지 10주에 걸쳐 펼쳐진 본 공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메인 공연으로 한마당의 성격을 가진 30분 이상의 공연물과 관객의 웃음과 흥에취할 수 있는 부수공연, 그리고 율동미를 갖춘 댄스그룹 공연으로 볼거리 창출을 무대로 끌어내며 타 공연과의 변별력을 유도하였다.

왕골공예 체험과 도자기 제조의 물레체험, 케리커처,네일아트를 즉석에서 체험하는 부스를 설치하여 공연전과 공연후를 관객만족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케리커처’와 ‘사진촬영 인화’ 서비스는 손에 들고 돌아갈 수 있는 만족도로 기쁨을 자아낸 행사로 호평을 얻은바 있다.

한편 모든 행사를 보아도 시식행사는 그 지방의 토산물을 대표하는 만큼 ‘강화인삼쥬스’를 즉석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식전행사는 백미라 할 것이며 닭강정의 시식 또한 찬사를 받은 향토색 짙은 포맷이 아니었나 한다.

체험과 시식행사를 시작(15:00~16:00)으로 공연(16:00~17:00)은 매주 3가지 대단원의 변화있는 공연컨셉으로 이루어졌다.

랩-소디 빅 밴드의 연주로 첫날 첫회를 장식한 연주는 인천을 위하여 작사 작곡된 곡목으로 인천을 나타내며 흥을 돋는 토요상설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무대 몸짓으로 면면을 더했다.





대중생활예술 속에서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매혹의 현상은 아무래도 율동과 춤을 곁들인 밸리댄스가 아닌가 하나 우리가락과 우리의 춤사위도 좋은 설문에 답이 있었다.

인천광역시(관광진흥과) 지원예산에 의하여 공연계획서 제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을 제출하며 주관단체로 선정된 (사)인천예총이 4년차를 이끌어온 ‘토요상설공연’이다. 진행의 아쉬운 점

이 있다면 배정예산이 년년이 줄어 관객의 호응도에 적극적이질 못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현대유람선사와 동기실업, 하나투어도서여행사 그리고 해모수사우나 등 업체들의 협찬상품으로 이루어지는 간막의 퀴즈 프로그램은 관객을 즐겁게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충분한 예이다. 7월6일 8회차의 상설공연은 아쉬움을 남긴 날이었지만 (사)인천문인협회 소속 시인들의 ‘아름다운 인천 시낭송’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인천만의 특이한 프로그램으로 길이 남을 뉘앙스를 전파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사람의 뇌는 반복적인 말과 행동에 의하여 인지반응을 한다고 한다. 매년 〇월 〇일 〇〇장소하면 쉽게 반응을 보이는 ‘토요상설공연’으로 기억된다면 사람들은 인천을 다른 방법으로 기억하리라 믿으며 기억한다함은 다시 찾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 역사 속에서도 이주 해 온 사람들이 많이 산다. 영남, 호남, 충청 그리고 이북5도민 등 지정학적으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문화의 시대에 근로노동자들 또한 인천에 많다.

여럿이 모여서 잘 사는 곳 바로 인천이다. 다양한 문화층이 인천의 문화로 정착될때 인천은 문화융성, 창조문화의 도시로 다시 매진할 것이다.

인천, 좋아요 래알

인천은 문화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속에 ‘토요상설공연’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영상미를 추구하며 35년의 「인천사우회」

글 · 김수정

사진과 인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진촬영이 된 곳이 인천이고 보면 사진문화의 초기도 인천시가 될 법도 하나 그렇지 못한곳이 인천이기도 하다.

1866년 병인양요 후 미국의 함대 사령관 로저스의 군함 5개가 인천 앞바다에 정박했을 때이고 보면 인천개항 17년 전 이다. 그 5년 후의 사진이 잘 말해주고 있는것 처럼 빈 병을 가슴에 안고 찍은 촌로의 모습이 미국무성에 보관된 최초의 사진으로 사진속의 인물은 인천 사람이다. 셔터를 누른 외국인도 흥미위주의 촬영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한국 최초의 사진인은 김규진이란 인물로 일본유학에서 사진술을 배워 1895년 창경궁내에서 궁중사진과 초상사진을 찍은 자로 서울의 소

공동에 ‘천연당’ 사진관을 개관 첫 기원을 마련하였다. 인천은 어떠했을까, 서울보다 9년 뒤 일본인이지만 니오우에(井上) 사진관이 중구 중앙동에 생기며 처음이다.

사진 모임으로는 1943년 즈음 일본인들이 주축이었지만 ‘정용복’ ‘태영호’ ‘정헌식’ ‘신현호’ 등 인천인이 있어 인천의 ‘광영회’를 사진동호회 시초로 보는 것이다. 인천인으로 공모전에 처음 입상한 사람으론 1936년 ‘조선일보’ 주최 납량사진 공모전에 ‘이경우’의 〈석약귀범〉으로 최초의 응모 입상작이다. 해방과 더불어 ‘광영회’는 자연 소멸되며 그 뒤를 이어 ‘제물포사진동호회’ ‘은영회’가 결성되어 인천사진 저변확대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여느 도시도 비슷한 양상이지만 인천도 드디

어 1949년에 예술인협회가 창립되며 사진분과위원회가 결성, 예술사진의 전초를 꾀하였던 것이다.

사진인들의 모임을 보면 대부분 ‘동지회’ ‘동우회’ 등 친목단체로서 ‘같은 길을 걷는 친우’라는 풀이로 해석되는 단체등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인천사우회(仁川寫友會)도 오랫동안 친교와 취미를 같이하는 사람들로 모임을 갖게 되어 1970년 정영근, 전홍수, 김수정이 발의하여 이루어 졌다.

훗날(1969년) 펜 포토 클럽의 초대회장이었던 정영근, 경기일보의 사진기자였던 전홍수, 그리고 필자의 의기투합으로 빛을 본게된 본 ‘인천사우회’는 이듬해 중구 신포동의 ‘호전다방’에서 창립전을 열며 회원은 14명으로 당시의 사진동우회 치고는 적지 않은 회원으로 출발하였으며 인천사진계의 원로이며 의학박사인 이종화님을 위시하여 정도선, 변길선, 제씨가 초대작가로 참여 명실상부한 Incheon Photo Club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70년의 인천 사진계에는 동호인 클럽에는 ‘펜 포토 클럽’ ‘렌즈 클럽’ 그리고 ‘인천 사우회’ 등이 주를 이루면 사협(사진작가협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이르켰던 일도 있었다. 칼라사진이 대중화 되지 않았던 시대 흑백사진을 주로 할 때 이니만큼 사진인들에게 적지않은 고민은 현상과 인화를 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큰 애로의 하나였으며 전시할 공간부족으로 사진인들은 어려움을 이중으로 감당할 때 였다.

70년대의 인천은 개항장 일대의 중구 신포동, 중앙, 관동, 용동이 변화가로 사람의 장보기에서부터 극장, 쇼핑이 다 반경 1Km내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개화



김광호 '덴마크의 성인식'



김수정 '호수'



김원옥 '압록강'



김종규 '線'



박화영 '꿈의 궁전'



우경원 '靜'



이강복 '해빙'



이상국 '백년의 고독'

기의 물결을 타고 번성한 다방은 인천문화예술계에 크게 이바지한 공간적 예술의 터였다고 할 수 있다. 2회전과 3회전을 통일다방(현 애관극장앞) 그리고 은성다방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타 예술단체(미술, 음악)들도 다방의 공간을 이용하여 전시, 감상회를 치루었던 것이다.

74년에 가장 슬픈일이라면 사진계의 원로이시며 '사우회' 1회 초대작가로 지도해 주신 이종화 박사님의 타계였다. 3회전 후 '사우회'는 침체기를 맞으며 76년까지 이렇다할 행사없이 78년 11월에 재 창립의 기회를 열고 17명의 회원과 초대작가 4명으로 출발 '인천사우회'는 2012년도까지 꼭 35년을 이끈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회원으로 필자를 위시하여 박화영, 이흥기등이며 2회부터 참여한 회원으로 이상국회원이다.

78년 재 창립, 1회전 때의 초대작가로는 민영식 조선일보 사진부장, 이정웅 경기사협지부장, 김용수 부지부장, 경기신문사진기자 박근원 그리고 손석구씨등 4명이였다.

75년에서 82년까지의 인천은 문화예술 전시장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공보관을 위시하여 정우화랑이 새롭게 문을 열며 전시장의 면모를 갖추었다.

1회전을 통일다방에서 연 이후 2,3회전을 공보관에서 열며 이상국이 입회하고 3회 때는 고영식, 김계순등이 4회 때는 안주백이 참여 '사우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임이 되었다.

4회 전시를 82년, 6회 전시를 84년에 정우화랑에서 개최하며 사우회의 심볼-마크도 갖게 되었다. 현상과 인화 작업을 임근원씨의 집에서 하며 토론과 작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월례회를 활성화 그달의 좋은 작품을 선정 부상을

주는 연구노력의 사진 클럽으로 자리잡아 나갔다.

85년은 ‘사우회’에 있어서 대단히 뜻 깊은 해로 기억이 된다. 2회째 입회를 한 이상국 삼광조선(주) 대표가 중구 인현동 내리교회 밑 [석정화랑]을 개관하며 동년 11월 9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열렸던 제7회 전시는 개관 기념전으로 치루며 사진동호회가 좀처럼 만들기 힘든 도록을 발간하며, 94년 16회전까지 [화랑석정]은 ‘사우회’의 전시는 물론 사무실 겸 모임의 장소로 넉넉함을 구가하였다.

석정화랑이 문을 닫으며 ‘사우회’의 전시 장소도 변화가 찾아왔다. 17회(1995년)전을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하고는 1996년(18회)부터 2012년(35회전)까지 18년째 인천문화회관(인천예총 수봉문화회관)에서 열며 4반세기를 훌쩍 넘는 연륜으로 성장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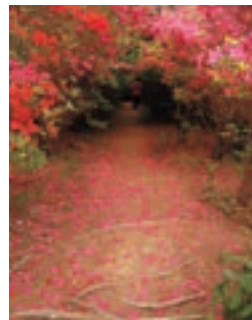
2000년대 사진계의 뚜렷한 변화는 흑백에서 칼라, 그리고 디지털시대로 접어든 큰 변화로 편리함을 누리고는 있으나 사진예술의 미학은 아나로그 시대만 못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35년, 그리고 재 창립 이전의 태동기를 합산하면 38성상을 지나온 사진의 마니아들로 지난 세월이 감회 그 자체이다. 회원간 소재의 표현, 무엇인가 간접없는 자유 분명한 사체와 피 사체간의 시각적 언어 창출에 매진, 인천영상문화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긍지로 ‘사우회’는 영원할 것이다.

2013년의 ‘인천사우회’는 이상복 회원이 회장을 맡아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 박정숙, 우경원, 김종규회원이 실무 간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유태영, 김원옥 연수문화원장과 최해숙 회원의 원숙미를 더하며 반세기 아니 100년의 역사를 일궈 나갈 것이다.



유태영 'Glass cup'



박정숙 '꽃길'



이흥기 '연등'



최해숙 '귀로'

우수레퍼토리 공연, 그 오십일간의 여정

글 · 김문광

지난 5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남구 문학경기장 야구장 지하에 위치한 문학시어터에서는 51일 간에 걸쳐 릴레이 공연이 진행되었다. ‘우수레퍼토리 공연’이라는 제하에 가족극 두 편과 성인극 네 편, 총 여섯 작품이, 이틀 셋업 나홀 공연이라는 페이스로 무대를 달구길 한 달 반여. 릴레이 공연이라는 형태로는 그 전에 치러진 제31회 인천항구연극제가 있었지만 이것은 전국연극제를 위한 예선이라 아무래도 연극인들을 위한 리그의 성격이 강했다. 그에 비해 우수레퍼토리 공연은 온전히 관객을 위해 준비한 페스티벌이다. 몇 가지 과제를 남기긴 했지만, 극단의 자생력과 내공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우수레퍼토리공연의 첫 무대는 극단 해오름의 ‘꿈을 파는 가게 - 신문공주’

괴수에게 납치당한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치열한 모험을 하는 왕자의 이야기이다. 배우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조작을 하는 극중극의 인형극 형식이라 어른들이 보기에 는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객석을 메운 어린 손님들의 눈에는 거대한 용을 향해 칼을 쥐고 날아드는 왕자의 모습이 수퍼맨보다 더 멋지게 보였으리라. 대사가 아닌 소리로만 스토리와 희로애락을 표현해가는



극단 해오름 <꿈을 파는 가게 - 신문공주>

모습에서 어린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무던히도 고민했을 제작진의 지난 시간들이 엿보였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과 의미를 배설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 한 마디, 단어 하나가 설화에 가까운 파장을 몰고 오는 현실의 사건들을 보며 새삼 그들의 노력이 귀중해 보였다. 하나하나 배우들 손으로 직접 만든 다양한 소품들, 신문을 찹작 구겨 인형을 만들어내는 손길에서까지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고 하면 과장일까. 적어도 그것은 세대를 아울러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되었다.

다음 공연은 극단 꼬마세상의 '달곰이의 모험'

극단 꼬마세상은 1997년 창단 후 끊임없는 레퍼토리 개발을 통해 연간 300일 정도의 공연을 소화하고 있는 중견극단이다. 이번 우수레퍼토리 공연에 올려진 '달곰이의 모험'은, 인간들의 이기심에 희생당한 자연의 씨앗들이 재활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보호라는 다소 막연하고 교육적인 이야기를, 주의 산만한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가며 무대를 이어가기



극단 꼬마세상 <달곰이의 모험>

란 또 얼마나 어려울까. 귀엽게 생긴 인형 덕분에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이 날 본 달곰이를 잊지 않을 것이다. 훗날 조금은 자연을 생각할 줄 아는 바람직한 사회인이 되었다면, 아이들에게 사회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타는 법을 가르치고자 한 극단 꼬마세상의 노력이 조금은 주효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예술과 달리 연극은, 생애 첫 관극 작품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인생관이 달라진다고 한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장감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 연극은 심리치료에도 이용될 정도로 가슴 깊숙이 침착되는 파급력과 호소력이 있다. 연극의 교육적인 성과에 대해 낙관하는 까닭이다.

세 번째 작품은 이번 인천항구연극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극단 태풍의 '오두석의 귀가'

정수기 회사 영업사원으로,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공원에서 깨어난 오두석은 고약한 노인을 만나 자신의 소중한 추억들이 난도질당하는 쓰린 경험을 한다. 비록 후배를 상사로 모시고 박봉에 어깨 펴 날 없는 오늘이지만, 그도 한 때 피 끓는 민주투사였고, 뜨거운 사랑에 우는 청년이었다. 노인은 마치 스크루지의 유령처럼 그의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어렸을 적 잃은 부모님과, 젊은 날의 청춘과 첫사랑, 어린 딸의 미래, 주변의 많은 오해들의 진상을 보여준다. 작품의 원제목은 '주마등' ...

이 작품은 감히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 잠시의 휴식을 마치 고 그 아득한 윤희 속으로 돌아갈 때, 평생 그림던 존재가 마중을 와준다면 얼마나 안심일 것인가. 가슴 속 깊이 들러붙어 있던 미련과 한을 다 태우고, 이제 가도 되느냐고 세 번을 묻는 오두석... 그가 한번 물을 때마다 그의 인생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배우들이 조금 더 연륜이 있어서 그의 영혼이 정화되어 가는 모습을 조금 더 진하게 연기해주었다더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는 여지로 보자. 공연이 끝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꺼내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작가의 의도는 성공한 것이리라.



극단 태풍 <오두석의 귀가>

다음 작품은 역시 이번 인천항구연극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극단 보아스의 '행복해, 장유씨'

TV와 영화 등에서 활약중인 배우 이장유 씨의 재치와 역량을 느낄 수 있는, 한없이 모노드라마에 가까운 연극이다. 조명이 켜지면 무대 위는 화원으로 변신한다. 오늘은 아들의 스물두 번째 생일 날. 모처럼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생일상을 준비하고 싶은데, 먹은 기억도 없는 짜장면 값을 내려며

화원으로 들이닥친 청년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언제 봤나 가웃거릴 틈도 없이 연이어 올려대는 전화. 이런이런, 초상집에 축하화환을 보내고, 경사집에 근조화환을 보내는 실수가 터진다. 오늘 왜 이리 낮을 뻔나, 또 따르릉. 이번에는 결혼식 임시주례 요청이다. 마치 운수좋은 날을 방불케 하는 정신없는 하루를 겨우 마감하고 장유 씨는 어두운 화원에서 홀로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켜다. 그것은 제사상이었다.

타국에서 아들을 잃은 이장유 씨 자신의 경우를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이다. 공연은 아들의 영혼이라도 만나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싶은 비탄의 심정을 토하며 막을 내린다.

연극이란 살아있는 장르이다. 이 작품으로 자식을 잃은 이장유 씨의 슬픔이 위로받길 바라며, 보다 더 연극적인 연구와 장치를 통해 그 비감이 서로 아끼고 지켜주는 인간에 그윽한 무대로 승화되길 기원한다.



극단 보아스 <행복해, 장유씨>

다음은 늘 사회성 짙은 작품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극단 산만의 '어제처럼'

연일 신문지상을 강타하며 전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유아 성폭행 사건. 실질적인 사형폐지 정책에 따라 그 범인들이 유유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자식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은 그 슬픔을 보상받지 못한 채 그늘에 묻혀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도 어린 딸자식을 살인마의 손에 잃은 젊은 부부. 사건이 일어난 그 날에 삶을 단아버린 이들에게 '어제'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에텐이다. 죽은 딸의 환영을 보며 정신이상 증세까지 보이는 아내를 돌보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디던 남편은 어느 날, 범인이 또 다시 같은 사건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 작품은,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라는, 이미 존엄을 잃기 시작한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주워 보여준다. 연극이라는 장르가 가진 의무일 것이다. 이미 질서의 색깔도 패러다임



극단 산만 <어제처럼>

도 바뀌어 버렸지만 이 세상을 지탱 해주고 있는 근본에 대한 질문. 우리가 배척해야 할 절대악 레비아탕이 존재를 알기에, 더욱 그 가치를 되새겨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배우들이 몸으로 목소리로 호소한다. 두 시간의 러닝타임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시종일관 유지되는 긴장감 넘치는 연출과 탁월한 연기술이 돋보인다. 영화나 드라마로의 변신을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올해 우수레퍼토리공연의 마지막 작품은 극단 미르의 '미드나이트 포장마차'

작년에 '심야식당'이라는 일본드라마가 큰 화제를 모았다. 그 인기에 힘입어 이태원에는 실제 심야식당이라는 식당까지 생겼다. 그만큼 밤에는 수많은 갈증과 공허가 떠다닌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한밤중에 소주 한잔, 우동 한 그릇 생각나면 골목길 가로등 밑의 포장마차 밖에 없었다. 거기에 쏟아놓은 젊음을 모두 모으면 지구를 정복하고도 남지 않았을까. 이 작품은 그런 우리 동네 어느 구석, 어느 날 밤의 포장마차 이야기이다.

오늘도 부지런히 장사를 준비하는 포장마차 주인. 잠시 후 하나씩 찾아드는 커플의 사연이 재미있다. 결혼하자며 때를 쓰는 여자, 아내와 싸워 눈에 멍이 든 아저씨. 밤장사를 준비하는 병아리 사업가. 그리고 젊은 시절의 첫사랑과 재회하러 온 노인. 극이 진행되며 이들은 우리도 그랬듯이 서로의 사연과 얹히기 시작한다. 결국 그들 모두가 한 가족이었다는 다소 싱거운 결말이지만 상황에 따라 응대가 달라지는 사람들의 이중성과 복선이 깨알같이 들어있어 재미를 놓치지 않는다. 게다가 포장마차라는 설정에 맞게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에게 오뎅과 우동 서비스까지 해주니 관객들로선 기쁘기 그지없다. 본시 극장에선 음식물 취사 섭취가 안 되는 것이지만 잠깐 눈을 감기로 하자.



극단 미르 <미드나이트 포장마차>

위낙 능숙한 배우들인데다 이미 수차례 공연을 한 바 있어 무대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결국 작품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불가에서 말하는 ‘인연.’ 실험적인 작품도 많고 기초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도 많지만, 이렇게 편안한 가족극이야말로 연극이 일반대중에게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해답이 아닌가 싶다.

예술을 언급함에 있어 창작의 고통은 자주 회자되지만 보는 관객의 입장까지 고이 생각해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다른 매체와 달리 현장이 아니면 작품을 감상할 수 없는 연극은, 관객들의 시간에 대해 그 어떤 매체보다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우수레퍼토리공연은 제법 괜찮은 만찬이라 할 것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까지 몰려 있는 5월, 많은 공연장들이 대형 뮤지컬, 유명 악극, 화려한 콘서트 등으로 관객을 유혹하고 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높는데다 연인끼리 가족끼리 공연 한 편 보는 문화선물이 대세인 요즘,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만한 연극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대부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쉬운 것이다.

연극의 삼요소를 희곡, 배우, 관객이라 하는데, 요즘은 돈과 기획과 극장이라는 빼있는 소리까지

들려온다. 관계자라면 공감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종교적 의식이나 유희가 아니며 예술가이기 이전에 생활인이니, 경제적인 측면은 공연 창작인들이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함께 만들어낸 무대이건만, 초대권을 뿌려도 오지 않는다는 푸념은 제도를 탓하기 앞서 자성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소통의 부재를 탓하기 전에 유통의 부재를 재고해볼 때이다.

이정표 하나, 다리 하나 걸어두지 않은 채, 강 건너 사람들에게 헤엄쳐서 건너오라고 손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총 28회 공연에 관객수 900여명.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고, 문화향수권 확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치러진 행사로선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 할 것이다. 문학시어터 144석 중 비어 있는 백여 석이 마치 문화사각지대를 상징하는 듯하여 마음이 씁쓸하다.

이미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시절은 지났다. 작살을 들고나가 공격적으로 사냥을 해야 하는 문화전쟁의 시대이다. 근력이 모자라다면 한 손, 두 손 모으면 된다. 어차피 연극은 종합예술이니까.

당장 필요한 것은 전문기획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염불하는 손과 머리 깎는 손은 다른 법. 문화도 상품이라면 제작측과 영업측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국영화가 미중유의 르네상스를 구가하고 있는 것도 기획초기부터 철저한 역할 분담에 따른 시장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는 이미 상품이고 경쟁력이며 국력의 상징이다. 연극의 미래 역시 월드 한류에 있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전문 홍보기획팀이 구성되어, 부르는 자세가 아니라 찾아가는 자세, 모르는 연극이 아니라 먼저 찾는 연극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높은 산을 보면 설레고 뾰은 길을 보면 두근거린다는 어느 여행가의 말이 떠오른다. 내년 우수레 피토리 공연쯤에는 또 성큼 커다란 걸음을 걸어낸 인천연극을 기대해본다.



인천무용제

글 • 김주성 인천무용협회 회장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이하 인천무용협회) 제11대 지회장 김주성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삶에 변화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의 예술세계를 추구하고 그 표현과 전달에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인천의 무용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천무용제는 그런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인천무용제는 지난 7월 10~13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진행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연섭외, 행사홍보, 관객모집, 인력관리 등 책임감이 다르다보니 많이 어려웠습니다. 반면 커다란 보람도

느꼈습니다. 새로운 관객의 확보, 행사를 통해 만난 새로운 사람들, 구성원간의 돈독한 신뢰 등 많은 뜻깊은 경험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인천무용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무용제를 진행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향후 인천 무용의 나아갈 방향까지 조금이나마 소개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실 올해 3월에 인천무용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고 앞으로의 일에 전 많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신의 예술세계를 꿈꾸고 나만의 방식으로 아집과 고집으로 창작 작업을 하면서 가장의 의무에 충실했던 저는 지회장이라는 자리가 욕심도 났지만 많이 부담스러웠습니

다. 나와 내 가정을 돌보는 것은 물론 인천의 무용을 돌봐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5월에 어리둥절해하며 ‘인천 춤 길’이라는 회장으로서의 첫 행사를 치루고, 인천에서 가장 큰 무용 축제인 인천무용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무척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하지만 다행히 주변의 많은 지인들께서 도움을 주었고 며칠 전 무사히 무용제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인천무용제에서는 비경연, 경연 이외에 해외 안무가들의 전문가 워크샵도 함께 진행했는데, 공연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무대조명 및 기타 기술적인 장비의 셋업 그리고 단체들의 테크니컬 리허설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때를 활용하여 저녁에는 해외에서 온 헨리 쉼(Henry Shum)과 미호 코나이(Miho Konai), 시게키 야마다(Shigeki Yamada)의 전문가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는 중,고등학생 및 무용수를 포함 총 20여명의 인천의 꿈나무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인천의 무용꿈나무들에게 해외 안무가들의 움직임 스타일이나 그들의 움직임 메소드를 경험하여 좀 더 글로벌한 시각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각 안무자들은 아메리칸 스타일 테크닉 수업, 작품 레파토리 수업, 공을 활용한 저글링 움직임 메소드 등을 아이들에게 지도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애초 의도대로 다른



외국인의 움직임 스타일을 배우면서 다양한 것들을 느꼈다고 한다. 무조건적으로 움직임을 익히고 배우는 습관을 지닌 아이들은 왜 움직이는지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표현하고 느끼는지를 생각해보게 됐다고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춤을 통해 스스로 자유로워짐을 느꼈다며 즐거운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수업을 지도했던 헨리와 미호 그리고 야마다 또한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았으며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으며, 다음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또 이런 기회를 갖길 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 협회에서는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를 인천의 무용 꿈나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중요한 일일 것이라는 확

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연 첫째 날 이날은 해외 초청팀(홍콩, 일본)과 인천의 신인안무가 윤재기, 정진선의 작품이 소개되었고 서울의 김현남 Dance Lab의 작품이 선보여졌습니다. 이날의 공연은 인천의 신인 안무가 발굴, 인천과 서울과의 교류 및 인천시민에게 다양한 국제적 무용을 선보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각 작품들은 저마다 각자의 색깔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로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작품들은 관객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 작품을 섭외하는데 있어서도 이점은 고려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용작품은 대부분 일반 관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비경연 작품선정에 있어서 작품을 이해하기 편한 작품과 약간은 어려운 작품을 고루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객의 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차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니다. 국제팀의 작품 중 헨리섬의 “Freak”은 섬세한 움직임과 잘 짜여진 구성, 그리고 조명과 무용수와의 조화로 작품의 의도와 내용을 공유하기에 적절하였으며 관객이 이해하기에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본 팀의 “Letter in the air”는 움직임과 구성이 독특하였지만 일반 관객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신인안무가들의 작품은 그 작품성과 완성도 면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하였지만 관객과 소통하려는 안무가들의 고민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이날 공연을 본 관객들은 내용을 전부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각각 다른 무용공연을 보면서 무용이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고 이야기 해주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관객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작품과 어려운 작품은 무엇일까요? 그건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쉽고 어려움을 떠





나서 이런 공연을 반복적으로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객들의 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연 둘째 날 이날은 전국무용제의 예선전인 만큼 출연진도 많았으며 작품의 스케일 또한 좀 더 크게 준비되었습니다. 김주성 이데아댄스컴퍼니의 “The Road”는 관객과 좀 더 쉽게 소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배우를 출연시켜 움직임과 배우의 대사연기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풀어나갔고, 김윤경의 엘림무용단은 “사랑에 미쳐, 슬픔에 갇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발레를 통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코리아 액션댄스컴퍼니(KADC)의 “피꼬리와 장미”는 푸쉬킨의 ‘피꼬리와 장미’를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움직임과 구성을 통해 원작의 내용과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주력하였고, 나영무용단의 “화무십일홍”은 우리 고유 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자 안무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JS무용단의 “촉”은 낚시대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무대 위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인간의 감각적 행태를 독창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모두 개성있는 작품으로 저마다의 작품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이날 인천을 대표할 한 팀을 뽑기 위하여 공연의 심사를 맡아주신 국민대학교 강경모 교수와 한성대학교 김남용 교수는 인천의 무용이 현재 서울의 무용과 그 수준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으며, 소재와 그 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서 놀랍다는 말을 하면서 인천무용계의 앞날이

더욱 밝을 것이라고 심사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연의 결과로 대상에는 JS무용단의 “축”이 받았으며, 최우수상은 김주성이데아댄스컴퍼니의 “The Road”, 우수상은 코리아액션댄스컴퍼니의 “피꼬리와 장미”, 최우수연기자상은 김윤경 엘림무용단의 김윤경이 받았습니다.

이번 인천무용제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은 홍보입니다. 왜냐하면 필자의 무용단도 개인공연을 할 때 관객집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인천시민의 무용에 대한 관심도가 어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인천은 아직도 문화 불모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용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협회장이 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것들 중 그 첫 번째인 “무용을 많은 인천시민에게 알리자”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협회의 직원인 사무장 한재호와 함께 홍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홍보를 위해 주 타킷은 무용을 잘 모르고 무용을 관람한 경험이 없는 일반시민과 다문화가정의 여성 및 자녀들을 주로 삼았으며, 이외에도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공단의 근로자들을 홍보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홍보인력을 구성해서 직접 찾아다니며 무용제를 소개하고 많이 와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었으며 공연관람 기회를 준 것에 매우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잡상인 취급하여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례 중 인상 깊었던 것은 다문화가정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티켓을 원했으며, 협회에 자주 전화해서 많은 결혼 이주민 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관람을 원한다며 이런 좋은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연 당일에는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 있었으며 그들은 약간은 어색한 모습으로 수줍게 공연을 감상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다문화지원센터의 복지사들은 모두들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것에 고마워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갖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전달받았습니다. 이는 향후 인천무용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무용예술교육사업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인천무용제를 진행하면서 필자는 사실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욕심은 언제나 일반 사람들에게 무용을 알리고, 더 나아가 우리 춤을 세계에 알리자는 욕심이었습니다.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는 무용장르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

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타장르의 예술에 비해 무용에 대한 호기심이 없으며, 있다 해도 그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큼 좋은 작품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무용을 관람하기 위해 만 원 이상의 티켓비를 지출하기에는 영화나 콘서트들에 비해 그 매리트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필자 또한 무용 작품을 볼 때 그런 경험을 적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무용은 재미와 흥미보다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약간의 스트레스가 필요한 장르입니다. 하지만 현 시대적 상황을 보더라도 문화 전반적으로 예술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길 원하는 관객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술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미 관객들에게는 예술을 통한 시각적, 정신적 충격을 그다지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시각적 매체를 통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필해야 할까요? 무용에는 영화처럼 화려한 효과, 명확한 내용의 전달은 없지만 감성적으로 전달되는 강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좋은 작품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명백히 드러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관객에게 좋은 작품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용을 알리고, 이 좋은 무용이 일반 사람들의 삶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안무가들의 창의적인 안무와 그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 정책적으로도 아니 작게 도나 시에서도 일반인시민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시대가 첨단화 되면 될수록 더욱 필요한 상대조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인천무용협회에서는 이번 인천무용제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이는 매우 희망적인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인천 무용의 수준이 서울과 견주어볼 때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인천에는 무용에 대한 잠정 관객이 다양하게 많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천의 무용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무용작



품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고 많은 이들에게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TV매체에서도 “댄싱9”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좋은 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는 무용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좀 더 퀄리티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무용을 알리는데 더욱 매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자는 협회장으로서 스스로 사명감을 더욱 깊이 새겨 향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천에 무용을 알리기 위해 우리 협회가 더욱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는 필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천의 무용예술인, 문화예술인, 관련기관의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인식과 협조가 필요할 것입

니다.

국제적으로도 국제도시인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선구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또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기 위해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선구자적인 도시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무용협회도 국제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용수 및 안무자 발굴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모쪼록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키워나가길 기원합니다.

“인천의 인물을 찾습니다”

글 • 김진국 인천일보 문화부장

인천시, 정명 600년 맞아 인천인물 선정 분주
인천 앞바다 어민들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킨 극작가 함세덕,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을 지낸 한국미술비평의 개척자 이경성, ‘야도(野都) 인천’의 신화를 만든 6선 국회의원 김은하. 지금 인천에선 인천의 인물들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인천엔 세상을 감동시키고 뒤흔든 인물들이 적지 않음에도 누가 인천사람이고, 그 인천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대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인천시가 ‘인천 역사인물 선정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천 정명(定名) 600년을 맞아 인천사람들을 드러내자는 취지에서다.

시는 ‘기억하고 싶은 인물 남기고 싶은 인물 발굴 사업’을 통해 인천의 역사적 인물 가운데 그 활동과 업적이 두드러진 사람을 선정하고 있

다. 인천 인물은 지역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1차 정리 안을 토대로 토론회와 자문회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하게 된다.

시는 지금까지 3차례의 자문회의와 실무자문회의, 1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인물선정 기준을 설정했다. 인천도시인문학센터는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구축한 인천인물 데이터베이스(약 1,000명) 가운데 약 240명을 검토대상에 올려놓았으며 그 가운데 약 90여명의 인물들을 선정했다.

지난 7월 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인물선정 방향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선 4명의 연구자들이 시대별 분야별 주요 인물 분담해 선정한 결과와, 정리된 약

40여명의 인물 약전(略傳)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인천 인물의 정의와 선정 기준과 범위는 이렇다. 우선 인천에서 출생하거나 활동한 인물 가운데 지역 사회,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인물이어야 한다. 둘째, 인천 인물 가운데 문화·역사·학술·정치·경제 등 각 분야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어야 하며, 인천의 역사와 지역사회 변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생몰년 및 활동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을 받거나 인천광역시사, 구·군지, 인천의 각 학교 교지(校誌), 인물소개책자,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소개된 일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인물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활동과 업적이 현저하고 인천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일행적이나 월북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 역시 활동과 업적 중심으로 인물을 선정하기로 했다. 단 해당하는 인물의 경우 ‘약전(略傳)’에서 논란이 되는 행위는 사실에 기초해 분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선정범위는 미추홀부터 근현대까지 전 역사 시기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되, 근현대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근대인물은 문화(예술), 교육, 사회운동(항일, 사회, 의병), 정치, 경제, 과학기술, 종교, 기타 등의 분야로 분류하

여 선정하게 된다. 단 전근대 인물은 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 같은 기준으로 약 100명 내·외의 인원을 선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선정된 주요 인물

그렇게 지금까지 선정된 주요인물은 다음과 같다.

▲ 대한제국 최초의 근대식 군함 함장 신순성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군

함의 함장이자 근대식 기선의 선장으로 알려진 신순성(愼順晟, 1878~1944) 선장은 1878년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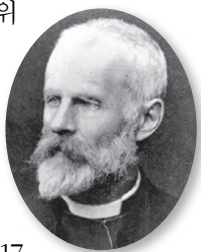
신순성은 개화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 서당 대신 한성일어학교에 입학해 일어와 신(新)문명을 접했다. 박영효의 추천에 의해 관비 일본 유학생으로 선발된 신순성은 1897년 동경상선학교에 입학해 4년간의 근대식 항해교육을 받게 된다.

구한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해군력의 증강을 꿈꿔왔던 고종황제는 당시로서는 거금인 55만원을 들여 일본으로부터 군함을 도입했다. 이 군함은 고종황제에 의해 ‘나라의 무력을 키운다’는 뜻을 가진 ‘양무호(揚武號)’라고 명명됐다. 그리고 바로 이 군함을 이끌고 1903년 4

월16일 인천항에 닿을 내린 이가 신순성이다.

▲ 의료·교육주력... ‘조선성공회 주춧돌’ 초대 성공회 주교 찰스 존 코프

인천 중구 내동 3번지에 위치한 대한성공회 인천 내동 교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성공회 교회다.



대한성공회 인천 내동교회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인 18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해군의 군종 사제를 지낸 찰스 존 코프(Charles John Corfe) 주교가 그 해 9월 29일 인천 제물포항에 첫발을 내디디면서부터다.

코프 주교는 이때부터 1905년 조선을 떠나기까지 16년 동안 초대 주교로서 조선성공회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인천 내동교회를 시작으로 서울 정동과 낙동(구 대현각빌딩 부근)에 성공회 교회를 세우고 포교에 나섰다. 특히 경기도 평택과 충북 청주·진천으로 이어지는 교세 확장이 코프 주교가 머문 기간에 이루어졌다. 그는 조선에서 성공회 포교의 방편으로 의료와 교육을 강조했다.

▲ 인천 앞바다 어민들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킨 극작가 함세덕

함세덕(咸世德, 1915~1950)은 1915년 5월 23

일, 경기도 인천부 화평리 455

번지에서 중류층 이상의 가

정에서 5남매 중에 장남으

로 태어났다. 인천공립보

통학교 시절의 함세덕은 성

적은 비교적 우수한 편이었으

나, 자그마한 체구에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소년이었다.



1929년에 인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인천고등학교인 인천상업학교에 입학한다. 함세덕은 이곳에서 학업을 쌓는 동시에 막역한 친구 3명을 얻게 된다.

이들과 함께 월미도에 놀러가 낚시를 즐기며 며칠씩 캠핑을 하기도 했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서는 금강산이나 경주에까지 여행을 다니는 등, 함세덕에게 있어 인상 시절은 직접체험을 쌓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였으며 동시에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구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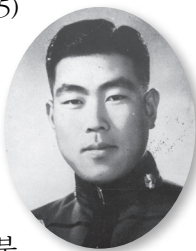
이 때에 여행뿐만이 아니라 문학과 연극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스스로 시 습작도 했고, 4학년 때에는 졸업생 환송을 위한 연극 대본을 직접 쓰고 연출을 맡기도 했다. 당시에 그가 살던 용동 237번지 10호 근처에는 영화나 악극, 연극을 공연하던 ‘애관(愛館)’이 있었는데, 함세덕은 이곳에 새 연극이 들어오면 시험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보러갔다

▲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을

실천한 청년 장교 **강재구**

강재구(姜在求, 1937~1965)

는 수도사단(맹호부대) 제1연대 3대대 10중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월남 파병 훈련중 부하가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 위로 몸을 덮쳐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순직한 육군 소령이다. 강재구는 1937년 7월 26일 당시 인천 금곡리(金谷里) 54번지에서 태어났다. 인천중학교를 다닐 당시 주소는 송림동 57번지였다. 6·25전쟁을 겪고 난 후에는 서울고등학교를 거쳐 1956년 6월, 교번 1141번을 받으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1960년 3월 23일, 육사 생도 강재구는 4년간의 육군사관학교 생활을 끝내고 소위로 임관했다. 졸업 성적은 178명 중 9등이었다.



▲ ‘야도(野都) 인천’의 신화를 만든 6선 국회의원 **김은하**

김은하(金殷夏, 1923~2003)

는 1952년 초대 인천시의회의원에 최연소로 당선된 후 6~11대 동안 6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인천에 ‘야도(野都)’의 전통을 뿌리내렸다고 평가받는 정치인이다. 1923년 인천시 숭의동에서 태어났다. 인천에서만 15대를 살아



온 경주 김씨 토박이 집안이다. 김은하는 창영초등학교를 거쳐 동산중학교, 동국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왔다. 학창시절엔 ‘비호(飛虎)’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육상, 기계체조 선수로 유명했다고 한다. 동국대 재학시절인 1948년 전국학련 서울시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은하는 1952년 4월 실시된 지방자치 선거에서 최연소로 출마, 초대 인천시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당시 나이 29세였다. 이후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1대까지 연이어 당선되며 인천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자리잡았다. 김은하는 국회에 진출한 직후부터 강한 야당 의원의 이미지를 굳혀갔다.

▲ 동명초등학교를 설립한 영원한 교장선생님 **박창례**

박창례(朴昌禮, 1910~1983)

는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소년소녀들을 위해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야학활동을 멈추지 않고 광복 후에는 동명초등학교를 설립하며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인천의 교육자다. 박창례는 1911년 인천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는 박인기(朴仁基)로 인천해관에 근무하기 위해 이주해 온 개성 사람이다. 박창례가 어린 나이에 야학의 뜻을 품은 이유는 자신과 같이 가난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였다. 박창례는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정신여학교에 진학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 문학부에서 통신교육으로 공부를 이어갔다.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박창례는 평생의 동지 이옥녀와 함께 도원동 보각사(普覺寺) 방 한칸을 빌려 성냥공장, 솜공장, 정미소 등에서 일하며 가난 때문에 정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소년소녀 100여 명을 모아 관서학원(關西學院)이라는 간판을 걸고 야학을 시작하는 등 가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나갔다.

▲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을 지낸 한국미술비평의 개척자 이경성

석남(石南) 이경성(李慶成, 1919~2009)은 1919년 2월 17일 인천시 화평동 37번지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학순으로 본래 유성에 거주했는데 조부인 이규보가 전염병을 피해 이주하면서 인천에 정착했다. 어머니는 진보배이며 문학동 출신이다. 이경성은 어린 시절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자랐다. 다섯 살 때 경동 100번지로 이



사하며 아버지가 밀가루와 국수 도매상을 시작하면서 장사에 성공한 덕분이다. 이경성의 학교 생활은 1926년 창영보통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됐다. 졸업하던 해인 1931년부터 1933년까지 세 번에 걸쳐 인천공립상업학교에 응시했으나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삼수를 할 때는 영화보통학교로 학적을 옮기기도 했지만 결국 시험에 합격은 못하고 1934년 숭문중학교의 전신인 경성상업실천학교에 입학해 3년 과정을 수료했다.

19세가 되던 해인 1937년에는 도쿄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 전문부 법률과에 입학했다. 이때 도쿄에 도착한 이경성을 맞이한 이가 인천 출신으로 타다미술학교(多摩美術學校)에 다니던 이남수였다. 원래 마중나오기로 돼 있던 장분석이라는 친구 대신 이남수를 만나 같은 하숙방에 머물면서 미술에 대한 안목을 갖기 시작했다.

인천시, 인물 선정 뒤 인천인물선집 발간 예정시는 선정된 인물의 생애와 활동상을 정리한 ‘인천인물선집’(가칭)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민들이 2천여년전 비류 집단이 미추홀국을 세운 이래, 그리고 인천 지명이 탄생한 이래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명멸해간 인물을 통해 인천의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물선정 과정에서 활동 업적이 뚜렷하고 인

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인물(10명 내외)에 대해선 인천시에서 인물연구와 책자 발간, 전시회 개최 등을 포함한 다양

한 기념사업의 추진도 제안하게 된다. 또 이번 인천 인물선정 사업을 계기로 생애나 활동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주요인물에 대해선 체계적 연구를 촉진하고, 〈인천인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천인물사전〉 편찬과 같은 후속 사업을 통해 인천인물의 발굴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인물 연구 사업은 그 업적과 활동이 탁월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인천의 역사와 도시변천, 지난 시기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범하게 살다간 시민들의 생애 역시 중요하므로 향후 일반 시민 원로들에 대한 구술증언채록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전근대(~1881) 67명=

▲ 선정인물

비 류(沸 流), 이자연(李子淵), 이규보(李奎報), 최 우(崔 瑀), 고 종(高 宗), 이정공(李靖恭), 어재연(魚在淵), 정제두(鄭齊斗), 이단상(李端相), 이승훈(李承薰), 이형상(李衡祥), 이광사(李匡師), 김재로(金在魯), 윤동규(尹東奎), 이세주(李世冑), 정우량(鄭羽良), 신 흠(申 欽) (이상 17명)

▲ 보류인물

계 흥(啓 弘), 이허겸(李許謙), 대각국사 義天,

배중손(裴仲孫), 이인로(李仁老), 김통정(金通精), 이자겸(李資謙), 이희목(李希穆), 김방경(金方慶), 김취려(金就礪), 육 연(六 然), 윤 관(尹 瓘), 최 영(崔 瑩), 김민선(金敏善), 양헌수(梁憲洙), 이건창(李建昌), 권 울(權 慄), 이희명(李喜朝), 김만중(金萬重), 김상용(金尙容), 김석주(金錫胄), 조 헌(趙憲), 강흥업(姜興業), 구원일(具元一), 권 필(權 輿), 김기주(金祺柱), 김안로(金安老), 김치인(金致仁), 민진원(閔鎭遠), 이광명(李匡明), 이궁익(李肯翊), 이세화(李世華), 이시원(李是遠), 임경업(林慶業), 정 철(鄭 澈), 정희량(鄭希良), 조 반(趙 胖), 조서강(趙瑞康), 철 종(哲 宗), 최석항(崔錫恒), 최석정(崔錫鼎), 황선신(黃善身), 우성전(禹性傳), 이시우(李時雨), 어재순(魚在淳), 김대건(金大建), 신정희(申正熙), 황사영(黃嗣永), 이 식(李 湜), 이동욱(李東郁) (이상 50명)

◇개항기(1882~1909) 39명=

▲ 선정인물

하란사(河蘭史), 유완무(柳完茂), 김 구(金 九), 김기범(金箕範), 강화석(姜華錫), 김병훈(金炳勳), 손승용(孫承鏞), 유군성(劉君星), 장기빈(張箕彬), 신순성(愼順晟), 정치국(丁致國), 서상빈(徐相彬), 서상집(徐相濬), 김덕순(金德順), 연기우(延起羽), 유명규(劉明奎), 이능권(李能權), 정재홍(鄭在洪), 이건승(李建昇), 오례당(吳禮堂·Woo Li Tang), 타운센드(W. D. Townsend), 조원시(趙元時·G. H. Johns), 남득시(南得時·E. B. Landis), 전학준(全學俊·Eug. Deneax), 코 프(D. J. Corfe) (이상 25명)

▲ 보류인물

변영만(卞榮晩), 변영태(卞榮泰), 강 준(姜 俊),

양재창(梁在昶), 이건승(李建昇), 박계석(朴啓石),
염성오(廉成五), 이동휘(李東輝), 모오스(J. R.
Morse), 존스 부인(Margaret Johns), 데슬러(D. W.
Deshler), 발터(Karl Walter)\(이상 14명)

◇일제강점기(1910~1945) 66명=

▲ 선정인물

고유섭(高裕燮), 고 일(高 逸), 박두성(朴斗星),
김동석(金東錫), 유경근(劉景根), 조진만(趙鎭滿),
진우촌(秦雨村), 함세덕(咸世德), 반복창(潘福昌),
심혁성(沈赫誠), 엄흥섭(嚴興燮), 원우전(元雨田),
이범진(李汎鎭), 곽상훈(郭尙勳), 권평근(權平根),
김교창(金敎昌), 김동수(金東洙), 김여수(金麗水),
김명진(金明辰), 박길양(朴吉陽), 유봉진(劉鳳鎭),
이길용(李吉用), 이 담(李 潭), 이화자(李花子) (이
상 26명)

▲ 보류인물

서병훈(徐丙薰), 서은숙(徐恩淑), 장 발(張 勃),
정 암(鄭 岩), 최 철(崔 鐵), 박창한(朴昌漢), 서일성
(徐一星), 주명기(朱命基), 최승우(崔承宇), 오화섭
(吳華燮), 조광원(趙光元), 조구원(趙龜元), 김형주
(金炯周), 나월환(羅月煥), 문무현(文武鉉), 박철준
(朴喆俊), 방 렬(方 烈), 송재필(宋在弼), 송창석
(宋昌錫), 신의철(申義澈), 유두희(劉斗熙), 유학서
(劉學瑞), 유희철(劉熙哲), 윤운용(尹允用), 윤응년
(尹應念), 윤재영(尹在英), 이경훈(李慶勳), 이봉석
(李奉石), 이사국(李思國), 이순승(李淳承), 이승
엽(李承燁), 이운문(李允文), 이을규(李乙奎), 이준
승(李濬承), 이중섭(李重燮), 임두엽(林斗曄), 장명
순(張明淳), 현 덕(玄 德)\(이상 40명)

◇현대(해방 후~) 68명=

▲ 선정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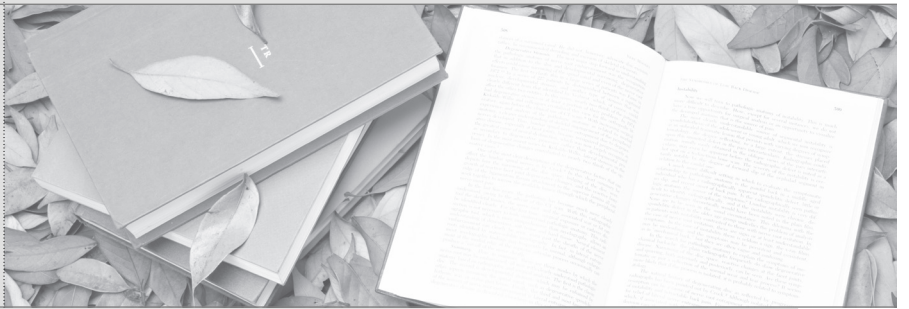
길영희(吉瑛義), 김활란(金活蘭), 박광성(朴廣
成), 박창례(朴昌禮), 신태환(申泰煥), 장 극(張
勳), 김은호(金殷鎬), 박세림(朴世霖), 신태범(愼
兌範), 오화섭(吳華燮), 우문국(禹文國), 유희강(柳
熙綱), 이경성(李慶成), 최성연(崔聖淵), 한상억(韓
相億), 한하운(韓何雲), 이회림(李會林), 조중훈(趙
重勳), 김선웅(金善雄), 유완식(劉完植), 강재구(姜
在求), 이훈익(李薰益), 조봉암(曹奉岩), 홍 진(洪
進), 김숙현(金淑鉉), 박경원(朴慶遠), 김찬삼(金燦
三)\(이상 29명)

▲ 보류인물

김정렬(金正烈), 양재박(梁在博), 윤재근(尹在
根), 이명호(李明浩), 이보운(李寶云), 이용설(李容
尙), 장 면(張 勉), 표양문(表良文), 김애마(金愛
麻), 조석기(趙碩基), 김상유(金相游), 김영의(金永
義), 김차영(金次榮), 박영성(朴瑛星), 배인철(裴仁
哲), 조규봉(曹圭奉), 조병화(趙炳華), 한남철(韓南
哲), 고주철(高珠澈), 류일한(柳一韓), 송수안(宋壽
安), 유군성(劉君星), 이흥선(李興善), 손갑룡(孫甲
龍), 조광원(趙光元), 신태영(申泰永), 임창식(林暢
植), 한용녀(韓龍女), 장삼수(張三壽), 장상용(張相
用), 조기신(趙基信), 조명원(趙明元), 조인애(曹仁
愛), 조종서(趙鍾瑞), 조종환(趙鍾桓), 한기동(韓基
東), 황도성(韓基東), 황일남(黃日男), 황준실(黃俊
實), 하상령(河相領), 모페트[S.A. Moffet], 스틸
맨, 나길모 \(\(이상 39명)

문학

詩 받을 건다 · 수필을 보다



The Art of Incheon

- 시 _ 해당화를 찾습니다 / 이상은
- 시 _ 나팔꽃 / 김민채
- 시 _ 빨강물고기 / 박기을
- 시 _ 송학공원에서 / 김미옥
- 시 _ 여름 월미도 / 김우섭
- 시 _ 내 사랑 연안부두 / 김수영
- 수필 _ 실연 / 이연숙

해당화를 찾습니다

이상은

바다에서 떠내려 온 한 떨기 유기전입니다
꽃으로 핀다지만 피어날수록 주먹으로 꺾니다
그래서 바람에 집니다
바람은 쓸데없이 보자기로
나를 보쌌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이정표는
바람에 해진 글자를 받아쓰다
종종 땀발로 걸어갑니다
서서히 밝혀지리란 예언이 붉게 떠오르는 바다
수면이 중심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는 섬을 데리고
낮선 애기의 내력을 빙빙 돌니다
방파제 넘어 오는 향기는 지금 붉어
파도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오늘은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 오도카니 나를 버리고 간
바람의 방향은 지금 안녕할까요
물고 뜯었던 이름이 자꾸 부릅니다
환청일까요 내일이 환청이라는 예보
들었지만 틀리겠습니다
겨우 서쪽의 안부가 붉어질 뿐
향기는 지금 공중의 빈 곳
벽보를 붙이는 일에 한창입니다



• 충남 전의 출생
• 2012 문학과예술 등단

나팔꽃

김민채

손을 짚는다
코스모스대궁을 짚고
굽어보는 해바라기를 짚고
하늘만 보는 느티나무를 짚는다
어젯밤
달빛을 얼마나 마셨는지
취기 오른 얼굴을
병긋거리자 저쪽에선
해가 솟고
취한 김에 전봇대마저 짚으려는지
그 손아귀에 잔뜩
힘이 든다
가만 보니
여린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 전북고창 출생
- 시문학등단
-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문학문인회 회원, 어울문학동인, 혜화시동인
- 시집 『빗변에 서다』

빨강물고기

박기을

출근 후 컴퓨터 커먼
눈 앞 펼쳐지는 전자 바다
밤새 쳐 놓은 그물엔
몇 마리 월척과
수십 마리 빨강 물고기
월척 다듬어 저장고 넣어두고
휴지통으로 버려버리는 빨강 물고기
처음엔 멋모르고
몰래 맛 보았지만
때마다 재발하는 호흡경련
눈 꼭 감고 휴지통에 버려보지만
하루 종일 눈 앞에 파닥거리며
내 눈 장미 빛으로 물들여버리는
19금 빨강 물고기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 1992년 서울시 문예공모 특선
- 1994년 2월 조선문학 천료
- '돌이가기' 상재
- 전 바라시 동인
- 인천문인협회 회원
- 어울 문학 동인

승학공원에서

김미옥

풀 비린내 맡고 싶을 때
사는 일이 급급해 몸의 경계가 희미해질 때
승학공원*에 간다
특히 여름밤은 공기에서 잘 익은 쇠죽 냄새가 나
쿵쿵 거려보지만
순 생짜 도시 사람인 나를 믿는 것 같지는 않다
말 잘 듣는 애인처럼 부드러운 봄밤은
바쁜 사람을 안달나게 하고
문학 배수지 언덕길
울창한 나무들의 사열을 받을 땐

고마운 마음이 절로 생긴다
가끔 축이 좋은 날
가쁜 달팽이관을 기울이면
천진한 명아주
싱거운 개망초
뚝심 질경이
풀, 풀, 풀 천지간의 소음 속에서
풀이라 모두 불리는 것들이
서로 부르는 소리 들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날은 흔하지 않고
시인의 예민함이라 자화자찬 하지만
금방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무슨 생각을 하며 운동장을 도는지
어떤 노래를 들으며 달리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지구의 자전방향으로 둥그렇게 걸어갈 것이다
누구하나 그리 하자고
약속 한 적 없지만



- 인천출생
- 방송대 국문학과 졸
- 시문학 등단
- 인천문인협회소속
- 어울문학동인

*인천 남구 문학동에 위치한 체육공원

여름 월미도

김우섭

바람은 자주 여름 쪽으로 돌아눕는다
우리가 귀하다 여겼던 것들은
모두 사람의 일이었으므로 사소한 후회가 되어
어느 곁에 먼 데로 날아가버렸다
가늘게 눈 뜨고 바라보면 오래 전
출렁임의 이면을 읽는 물소리
두서없이 밀려오고 다시 밀려오는 그늘 아래
막막한 저물녘
긴 노래의 후렴처럼 떠다니는 물새들

바란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립다면, 그립지 않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걸어야
그리움의 끝까지 닿을 것이다
무성한 여름의 기압골을 따라
사람들의 마을엔 비가 내리고 작은 섬처럼
둥둥 떠올라 하류로 향하는 발걸음
바다를 만나 울음 울 듯
젖은 살림을 꺼내어 헤아려 볼 때
나프탈린 냄새처럼 바람이 스쳐간다



- 시인
- 한자강사
- 서울예대 문창과 졸업
- 2007년 시인시각 신인상으로 등단
- 2008년 문학나무 젊은시 선정
- 인천문인협회 회원
- 시집 <잠들지 못하는 것들> 등 다수

여름내 월미도에는 바람이 불고
바람은 다시 가을 풀꽃들을 꺾어들고
분주해 할 것이다
해안까지 밀려온 반짝이는 비늘조각들
우리가 귀하다 여겼던 것들이
모두 사람의 일이었으므로 사소한 후회처럼
날아가 버리더라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름 월미도에서는
녹슨 배처럼
마른 나무 한 그루처럼
바람을 거스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

내 사랑 연안부두

김수영

여름 향기 갯벌에 묻어나던 날
작은 씨앗 하나
외로이 날아와
싹을 틔웠네

많고 많은 대지 위를 탐색하다
아담한 항구
말이 없는 조용한 그곳에



- 시인, 아동문학가
- 2005 문학공간 신인상수상(시)
- 2008 월간아동문학 신인상 수상(동화)
- 2009 한국아동문학상 수상
- 2010 한국크리스천문학 작가상 수상
- 2011 한국글사랑문학상 수상
- '청국장파티' '출추는마을버스' 외 동인 시집 다수 출간
- 한국문인협회, 한국아동문학회 인천문인협회 회원

싹을 틔운 건
아마도 말 못할 사연이 있나 보다

꽃이 피는 날
초저녁 네온싸인은
작은 촛불이 되어
사랑을 약속한 연인들의
잔치를 벌여주고
여름바람에 잔잔하게 흘러오는
빨 내음은
도시에 오염된 코끝을 사랑으로
자극시킨다

너와 내가 만난 곳
우리가 만난 곳
사랑이 있는 곳

욕심도 미움도
모두 내려놓고
여름엔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내사랑 연안부두에서

실연

이연숙

하점면 신봉리 772-*

습관처럼 오늘도 인터넷에 들어가 사진을 보고 나온다. 이 길은 길 안내판 없고 인생지침서로 옳음을 알려 줄 선인도 없다. 인간의 뇌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았던 확연한 사실이나 기억조차도 오류로 밝혀져 난감하기도 하다.

이런 날이면 뜰 안에 때 이르게 심어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장미뺨이나 쓰다듬는다. 장미는 나를 해치려 달려들지도 않고 큰소리로 짖어대지도 않거니와, 이웃이 갑자기 대문을 들어서더라도 그저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장미 보고 있었어?” 라고 아름답게 나를 미화 시켜줄 명분을 주기 때문이다.

애꿎은 장미야. 너를 핑계대서 정말 미안하다만 가슴에 행한 내 마음은 장미 천 송이를 보여준대도 채워질 거 같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하점면 신봉리의 그를 언제 봤느냐하면 언뜻 스쳐 지나간 것은 지난해 구월쯤이었을 게다. 분명 본 기억은 나는데 머릿속에 저장되지는 않았고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다. 다시 그가 눈에 들어 온 것은 긴 겨울이 지나 스물스물 봄이란 놈이 먼발치로 기웃대고 있을 올 이월이 되어서이다. 한눈에 시선이 멈췄다.

같은 사진이었지만 전혀 못 알아 본 까닭이 있다. 이번 사진은 먼 곳에서부터 주인공을 클로즈업 하듯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에 온도를 담을 수 있다면 그건 햇살을 담백 담고 있는 정겨움이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 밑에 파란, 주황 지붕의 슬레이트 집 두 채가 사이좋게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저 집이야”



- 1964년 인천 출생
- 인천문인협회, 강화문화회 회원
- 1998. 자유문학 등단
- 2009. 에세이문학 등단
- e-mail: ysleesong@hanmail.net

누가 손가락질 해주지 않아도 단박에 그를 알아볼 수가 있었다. 좁고 포장 안 된 자갈길을 돌아 올라가니 집은 위압적이지 않고 친밀감을 품고 내 손을 다정히 잡아끌었다. 그를 뒤에 두고 앞 전경을 내려다보니 너른 별판과 멀리 고려산이 아늑하게 보이고 가슴이 탁 트여 오는 것이었다. 집은 볼품이 없었다. 아이들이 있었는가. 칠 벗겨진 황토색 말이 넘어져 있었고 급히 이삿짐을 썼는지 어수선했던 그대로였다.

그래도 그는 자꾸만 내게 저 봐. 저 봐. 저 전경을 봐. 하며 컵가에 속닥였고 아, 여름 밤 지대 높은 이곳에 평상이라도 하나 놓고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얼마나 이쁘겠냐고. 감청색 하늘에 별들이 또록또록 돌아날 거야. 다른 어떤 세상을 소유한들이 보다 더 가슴 뛰는 보물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자꾸만 속살거렸다.

한번, 두 번, 세 번.

임을 맘속에 두면 자꾸만 눈 앞에 두고 싶고 허물은 지워지고 환상은 더 커져간다더니. 내 마음을 단번에 빼앗아간 신봉리의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공연히 차를 몰고 먼발치라도 그를 보고 나서야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했고 뒤탈가 어쨌더라? 하고 궁금해지면 서행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했다. 아무래도 단단히 마음을 빼앗긴 모양이다.

이러기를 여러 달. 드디어 중매쟁이를 만났다. 재담에 뛰어난 중매쟁이답게 성사를 위한 그의 노력은 나의 남아 있던 이성조차도 흐늘거리게 만들었다.

“맹지가 아닙니다. 보세요. 대지를 감싸고 있는 이 산지를 분할해서 붙이면 신축도 가능해요.”

“구거요? 요즘 누가 구거 따집니까. 그냥 요 앞밭으로 파이프 하나 묻음 해결돼요. 하하하. 단지 집 뒤에 묘가 좀 많긴 해요. 아 괜찮아요. 누워서 평생

을 지는 자와, 하루 반 누워 지는 자가 함께 사는 거죠 뭐.”

중매쟁이의 입담에 머리가 어지럽다. 혼인 하기에 맞춘 날로 길일을 잡았다. 올해는 윤달이 끼어 날짜가 많지 않아 서둘러야했다. 마지막 건강 검진이라도 할 겸 호적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 보았다.

아뿔싸. 하점면 신봉리 772*에는 건축물이 없었다. 그럼 무허가란 말인가? 그러나 장애가 있으니 더 애뜻한 마음만 들 뿐이었다.

무허가면 어떤가. 저렇게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착한 놈 만나기가 얼마나 흔잡한 세상인데. 속속들이 드러나는 결점들을 뜨거워진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이 난관들을 헤쳐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 고운 얼굴 뒤에 숨겨진 지상권과 줄줄이 달려 있는 근저당권이란 채무 앞에서는 암울한 그의 전과를 내 힘만으로는 더 이상 끌어안을 수가 없었다.

“안돼~ 이진.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되어서 기어코 나를 쓰러Em리고 말거야.”

사실 하점면 신봉리의 그는 내게 말 한번 걸지 않았는데 어쩌나 그의 마술에 걸려 행복한 시간을 꿈꾸었던지, 하얀색의 유럽풍 목조 주택 2층집도 지어지어봤고 나즈막한 단층집의 넓은 뜰과 과수들도 들여놨는데 믿던 애인에게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허허롭다.

한동안 다른 집은 보고 싶지도 않았다. 어떤 멋진 남향집이든 동향집이든 관심이 없다. 또 다른 멋진 그가 내게 온 다해도 한동안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남을 거 같다.

문득,

한기가 들어 고개를 숙이고 보니 동굴하나 가슴께에 열려있어 찬바람 한줄기 행하니 굶고 지나갔다.

길에서 묻다. 흔적

성냥공장 아가씨(인천의 성냥공장 이야기)

글 • 김학균

한국현대문학에서 공간적 배경으로 인천을 등장시키고 있는 작품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詩와 소설로써 나타나기 시작했다.

1930년대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문학사에 한 축을 이루었던 것이다.

인천이 일찍이 작품의 배경이 된 이유는 아마도 근·현대사의 중심축에 서있는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일 것이다.

조선조 26대 고종13년 인천 앞 바다의 ‘운양호’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을 맺고, 부산과 원산 그리고 인천 순으로 개항을 하면서 더욱 인천이 뜨고, 일본이 침략의 마성을 들어낸 ‘강화도 조약’이 인천을 현대사의 중심에 놓이게 한 것이다. 자연히 중심선에 놓이다보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모이다보면 생활의 터전을 일구고, 생업의 수단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한다. 수탈의 역사도 이래서 빚어진 것임이 분명, 어찌 보면 ‘인간문제’가 주제로 부상된 도시가



동일방직(구 동양방직)

‘인천’ 이라면 과한가.

공간적 배경의 사실성, 그 사실성에는 노동의 문제가 깊게, 깊게 배어있음을 볼 수 있다.

시쳇말로 ‘인천에 가면(오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고, 여자에 있어서 배움의 길이 있는 도시가 인천이라 했다. 전자의 말은 부둣가에서 등짐이라도 지면 돈벌이가 된다는 말로 연결되고, 후자의 말은 노동현장에서(주로 여자의 할 일이 많았던 곳) 일하며 주경야독 할 수 있는 조건의 도시가 인천이었기 때문이다. 방직공장, 정미소, 제면공장, 성냥공장 등등 여자의 일거리가 비교적 많은데서 나온 말, 설득력이 전혀 없는 말이 아니다.



조선인촌성냥 공장 터

늘 이야기 하게 되는 地界에서 밀려난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지역이 동구다. 소음도 있고, 조금은 더럽고(?), 비산 먼지가 발생되고, 눈에 보이면 거슬리는 공장,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물자(물건)를 공급하는 공장이 우리 동구로 밀리게 된 것, 이것 또한 역사의 잔잔한 슬픔이 아니겠는가. 노동자의 인천으로서 인간의 땀에 젖은 냄새가 있는 곳이 동구요, 노동자로서 악조건을 견디며 삶을 영위해 가는 ‘참 인간’이 살고 살아가는 곳이 동구다.

50년 이상 인천공업의 한 축을 이루었던 것을 들자면 성냥을 빼놓을 수 없다. 왜 아닐까, 지금의 군 생활은 어떤지 모르지만 50년대 60대 군필자라면 행군시나 훈련 귀대시 ‘인천의 성냥공장’이란 노래를 불러보지 않은 사람 없을 성 싶다. 어떻게 개사하여 말을 붙였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지만, 저속하고 민망한 가사보다도 그 군 시절 왜 그리 신이 났는지 모른다. 그 군가(?)를 부르면 사기가 충천했던 기억, 비속어가 간혹 가사속에 있기는 했어도 대단한 「애창곡」임엔 틀림없다.

1883년 개항이후 외국인들에 의하여 성냥공장이 세워졌다지만, 성냥의 시초, 공장이 있었던 곳 바로 동구다.

1917년 인천부 금곡리(현재 금곡동 33번지)에 「조선인촌(성냥)주식사」가 남녀 직공 500여명이 근무하며 연간 7만 상자의 성냥을 만들어 낸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최초의 성냥공장이 있었다면 금시초문일까.

부싯돌 시대가 끝 난지 오래, 딱히 불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라면 성냥뿐인 시절 「우록표」 「쌍원」 성냥이 국내 소비량의 20%를 웃돌았다면 대단한 우리 동구다. 그뿐일까 전국각지에서 견학차 방문 하는 수학여행의 꼬리는 얼마나 길었는지 짐작이 안 간다.

하루를 벌여 하루를 살던 시절, 이 성냥으로 하여 생계를 이어가던 때, 정말 효자 품목이 아닐 수 없다. 기계화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성냥갑이며 성냥알갱이 인을 묻히는 일이, 전부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공들이 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가난도 가난이지만 주체할 수 없는 항학열을 위 하여 유행냄새가 코를 찌르는 중독의 아픔을 참으며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눈시울을 적시기에 충분했음을 알 수 있다.

송림동과 금곡동의 꼬방동네 600여 가구들은 갑을 만들고 상표를 붙이는 일에 종사 적잖이 돈도 모아 인천의 최고 가내 수공업으로 인기 또한 좋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성냥산업의 시초라고 했다면 ‘천안’ 을 사회과목에서 배운바 있다. ‘천안 삼거리의 능수버들’ 버드나무가 성냥개비의 주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했는지는 모르지만, 재료생산이 천안이라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산업이라면 아니다. 분명 인천의 동구다. 물론 수입목이 재료의 거반이긴 했어도, 역사와 변창된 30년대의 산업분류에서도 자명한 일이다.

초입부에서 말한 노동사적인 일에도 성냥공장은 ‘인천 노동운동사’ 에서 한 획을 그었을뿐만이 아니라 고용주(일본인)들의 횡포를 바꾸는데도 일익을 담당했음을 볼 수 있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여성노동자들의 인격적 해방운동은 참으로 가상한 투쟁이 아니었나 한다.

1925년 금곡리의 ‘조선인촌주식회사’ 의 쟁의 파업과 1932년의 일본인 감독 배척 요구로 인한 파업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인간적인 모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함이 얼마나 빛날 일인가.

불처럼 일어난 금곡리의 성냥공장

성냥 만들던 아가씨들

어디 갔을까

오늘날 인천이 대내외적으로 국내 최대 공업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 뿌리 부분으로 내려가 보면 즐거워 할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과 여건 하에서 성장된 공업화가 아니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 그 뿌리가 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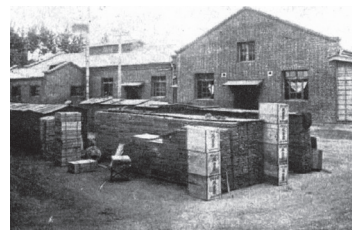


조선인촌성냥

아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우리 인천의 공장 설립과 건설은 일본 재벌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국 본토침공 등 일본의 침략야심이 본격화 되면서 인천의 공장건설이 활발해진 것이다. 전쟁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인천 땅이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인천항 축조, 경인 철도부설, 도시로 집중된 인구 과잉으로 넘치는 노동력, 짝 임금에도 구할 수 있는 인력 등으로 호재를 맞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우리 동구는 공업지대로 인천의 중심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조선인촌성냥 주식사 조업광경

송현, 화수, 만석에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으며, 30년대 초부터 꾸준히 증가되고 있었다. 34년 동양방직(주), 36년 조선목재, 조선제강, 이연금속 등 동구에 정착하는 기업은 규모를 따지지 않고 열거한다면 그 숫자는 족히 일백을 넘기는 것이었다. 인천 노동자 인구는 7천명을 웃돌더니 39년에 와서는 1만명 이상으로 증가 기계공업, 금속 공업의 신장이 매우 두드러졌음을 본다. 40년대에 접어들면서 태평양 전쟁이 확산 되는가 싶더니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원료난, 시설과피 등으로 폐허 상태로 해방을 맞게 되며 긴 침체기가 왔던 것이다.

한 시대의 흥과 망의 정점에서 삶을 본다면 지역적인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나 동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면면히 인생살이의 꾀꾀함을 보이고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가고 있다. 그 이유라면 그때 기업들이 어쨌든 본거지를 우리 터에 두고 가동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끈기가 아니었나한다.

금곡리에서 슬그머니 쇠퇴하여 없어진 공장이 1960년대 화수1리(화수1동)에 생겨 ‘大韓성냥공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전국에서 제일 큰 성냥공장으로 재탄생, 부활한 것이다.

지금의 석수로 맞은편 화수동 287번지, 화수아파트가 바로 그곳이다.

회사 이름과 같은 ‘대한성냥’으로 전국에 공급되어진 것이다. 60~70년대 화평 화수동은 번창한 거리로 인구 밀집도도 여느 시가지 못지않은 풍물을 가지고 있었다. 한 동네가 꿈틀거리며 흥이 넘치는 조건에 하나가 유흥점이 많다는 것도 있지만, 극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구름다리를 전동 쪽에서 넘어 화평, 화수 세갈래 길은 언제나 인천극장 쪽으로 흥청거렸으며, 20

여 미터 내려가면 구청의 전신 이었던 북부출장소가 있어 더욱 활기 넘쳤고, 화도고개 진입부근에는 군소 상인들이 밀집, 정말 사람 사는 냄새와 모습이 선연했다.

다시 화수동에서 만석길을 향한 100여 미터 우측에는 성냥공장이 들고 나는 사람들을 모으며 입에 풀칠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남자 공원들은 화학약품을 다루어 성냥을 제조하였으며 여공들은 골을 개비에 묻혀, 말려, 생산된 것을 갑에 포장하였던 성냥공장의 과정도 과정이지만 아침저녁으로 교대하며 지나들던 정문의 풍경은 학생수 많은 초등학교의 등하교를 방불케 하였던 것이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누이, 동생, 부모 부양하는 여인네들의 한결같은 제복은 그 시절 아름다웠던 풍경으로 기억된다. 한달에 서너 번 원목이 들어오는 날은 길이 차단되어 이수라장이 되었던 모습도 빼놓을 수 없는 풍경에 하나.

우리 동구의 성냥공장은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며 인천 역사의 큰 발자취를 남겼다.

1976년경, 군사정부 시절 문을 닫고 아파트가 건립되어 오늘에 이르렀지만, 서구 문물에 하나인 라이터에 밀려 더 이상 성냥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것도 성냥산업의 종지부를 찍겠음 하는데 하나의 이유가 났었다. 가끔 길에 노점상을 벌리며 성냥개비를 뒷박으로 파는 사람들을 보기는 했어도, 너나 할 것 없이 지포 라이터를 손에 넣고 자랑하는 통에 성냥은 설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2002년 인천 시립극단(감독 : 정진)에서는 월드컵 성공기원 작품으로 ‘성냥공장 아가씨’ 라는 연극을 무대에 올려 인천 시민들의 잊혀져 가는 옛 모습을 떠올린 연극공연이 있었다.

그 시절을 잘 묘사한 작품으로 우리 동구의 정체성 찾기에 일조한 일로 평가되어졌던 일.

연극 속 성냥공장의 아가씨와 그 시절 제복을 입고 성냥 만들던 아가씨. 눈물나도록 고맙고, 민족의 슬픔을 간직한 아가씨들이 아니었나…….

아! 그 시절

성냥 만들던 순이, 영자, 애자, 숙자, 민자,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대한성냥

REVIEW

The Art of Incheon

- (사)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 (사)인천예총 국악협회
- (사)인천예총 무용협회
- (사)인천예총 문인협회
- (사)인천예총 미술협회
- (사)인천예총 사진작가협회
- (사)인천예총 연극협회
- (사)인천예총 연예예술인협회
- (사)인천예총 영화인협회
- (사)인천예총 음악협회
- (사)강화예총지부



■ 2013 인천예총 문화학교 - 즐거운 글쓰기교실

- ▶일 시: 2013년 7월 ~ 9월
- ▶장 소: 웨마지역아동센터, 목민지역아동센터, 웃음꽃지역아동센터, 베스트지역아동센터
- ▶주최/주관: (사)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 ▶후 원: 인천광역시
- ▶점점 디지털화 되며 적극적인 사고를 잃어가는 디지털 치매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아동들에게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시키고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 ▶내 용:
 - 문학장르의 이해 / 창작의 기초 - 비유법(의인, 직유, 은유)배우기
 - 동시와 시화만들기, 생활문쓰기를 통해 자기표현방법 익히기
 - 토론 후 주장글쓰기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는 법 배우기

■ 2013 인천사랑티켓

- ▶일 시: 2013년 3월 ~ 12월
- ▶장 소: 인천시 관내 공연장
- ▶주 관: (사)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인천광역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후 원: 복권위원회, KB국민카드
-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향수 여건과 문화복지를 확대하여 미래잠재관객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복권 기금과 인천시 예산으로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24세 이하(1988년 이후 출생자), 65세 이상(1948년 이전 출생자) / 공연 7,000원/전시 5,000원 지원
- ▶추진실적 (3월~7월)
 - 총 수혜인원: 8,849명
 - 총 참가작품수: 85작품(연극17, 뮤지컬6, 아동극48, 무용2, 음악5, 전통4, 전시3)



■ 인천예술 30년史 발간사업

- ▶일 시: 2013년 ~ 2014년 (2013년 기초사업-자료수집, 원고 및 편집)
- ▶인천 문화예술 정체성 강화, 인천 문화예술사적 자료 보존 및 재정립, 한국예술문화발전 및 인천 예술 홍보에 기여하기 위함.
- ▶내 용: 분량: 1,000페이지 예상
 - 수록내용: 제1장 인천예술 30년사를 시작하며, 제2장 인천예총의 과거 그리고 현재, 제3장 인천예총 30년사, 제4장 / 인천예총 회원협회 30년 발자취, 제5장 인천예술의 발전방안과 논의, 제6장 부록
 - 집필위원: (국악)최명식, (무용)강혜은, (문인)김윤식, (미술)양창석, (사진)조건수, (연극)고동희, (연예)이관길, (음악)음영숙, (영화)황태현
 - 감수위원: (국악)안선균, (무용)박혜경, (문인)조우성, (미술)최원복, (사진)박만국, (연극)이재상, (연예)이배원, (음악)이종관, (영화)송인혁



■ 극단 메멘토모리 연극 'Arts'

친구가 산 그림 한 장을 둘러싸고, 그동안 우정이 라는 명목으로 우야무야 지내왔던 속마음을 모두 털 어내며, 진정한 우정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이야기.

▶일 시 : 2013년 2월 16일(토) 4시, 7시
2013년 2월 17일(일) 2시, 5시

■ 청소년극단 AOC '방향하는 별들' '죽은 시인의 사회'

연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거나, 문화적 소양을 키우고자 하는 인천 소재 학생들이 모여 창단한 청소년극단 AOC의 동계 발표회. 청소년들의 갈등과 열 정 꽃꽂함을 그린 명작 '죽은 시인의 사회' 와 '방향 하는 별들' 을 재구성하여 공연하였다.

▶일 시 : 2013년 2월 23일(토) 5시, 7시
2013년 2월 24일(일) 3시, 5시
▶주 최 : 캐연기학원

■ 극단 메멘토모리 연극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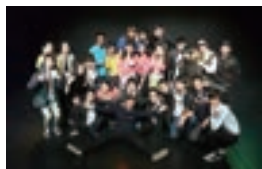
친구가 산 그림 한 장을 둘러싸고, 그동안 우정이 라는 명목으로 우야무야 지내왔던 속마음을 모두 털 어내며, 진정한 우정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이야기.

▶일 시 : 2013년 2월 16일(토) 4시, 7시
2013년 2월 17일(일) 2시, 5시

■ 매드스타아카데미 정기발표회 뮤지컬 '그리스'

1972년 브로드웨이 초연이후, 38년간 전세 계의 관객들에게 화려 한 퍼포먼스와 노래를 선보여, 세계 최고의 흥 행 레퍼토리로 군림한 뮤지컬 그리스. 연기자를 꿈 꾸는 매드스타아카데미의 학생들이 그 동안 익히고 수련한 솜씨를 발휘하여 새롭게 구성하여 선보였다.

▶일 시 : 2013년 2월 27일(수) 7시
2013년 2월 28일(목) 7시



■ 남구청평생학습포럼

인천 평생학습도시의 성과와 특성화 전략, 마을공동체운동과 평생학습, 청소년과 평생학습 등 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인천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 한 지자체의 역할과 비전을 모색.

▶일 시 : 2013년 5월 31일(금) 3시~6시
▶주 최 : 인천광역시 남구청



■ 공연영상예술센터 극단 인연 '유랑극단'

광복 전의 신파 유랑극 단 배우들의 다사다난한 삶을 통해서 개화 이후 우 리 근대극의 발달과정과 함께 예술과 인생의 의미를 되물어 보는 작품. 인하 대학교 예술체육학부 연극영화 전공 학생들이 주축 이 되어 만든 극단 '인연' 의 이번 작품은, 인천 공연 후 대학로로 진출, '처음이지만 대담한 도전' 이라 는 슬로건을 걸고, 인천 연극의 저력을 서울시민에게 피로하였다.

▶일 시 : 2013년 6월 1일(토) 3시, 7시
2013년 6월 2일(일) 2시, 6시



■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산학협력 MOU 체결

(사)인천예총이 경기도 인천에 위치한 문화예술전 문학원인 청강문화산업대 학교 뮤지컬스쿨과 산학협 력 조인식을 가졌다. 이후, 인천예총이 주관하는 행사에 청강대 학생들이 스태프로 참여하여 현장실습과 인재확보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후로도 이러한 기회를 더 확대하여, 모든 문 화예술계가 하나의 문화혈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일 시 : 2013년 6월 24일 저녁 5시 30분



■ 미추홀문화회관 강좌



▶서예

- 화 10:00~12:00 / 화 18:30~20:30
- 초보자는 문방사우의 활용법부터 기본획의 필법까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며 중급반부터는 기본이 되는 정자와 해서체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기를 수준에 맞춰 개인지도합니다. 또한 고급반에서는 공모전출품, 그룹전 등을 통해 더 한층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까지 더불어 가질 수 있습니다.

▶드럼

- 월 19:00~19:50 / 수 19:00~19:50
- 초등학교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수강가능하며 박자감각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까지 1석2조의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무용

- 수, 금 14:30~15:50
-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등 우리가락과 장단에 몸을 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서가 다른 우리만의 몸짓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신나는 요리교실

- 토 15:40~16:30 (유아) / 토 16:40~17:30 (초등)
- 매주 다른 레시피와 주제를 가지고 요리와 함께 창의력을 키우고 스스로 만들어서 익히는 자기주도적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접만들고 먹는재미까지~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중의 하나입니다.





■ '미소나눔' 봉사활동

바우처 운동의 일환으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결성된 국악회관의 '미소나눔' 봉사단은 국악의 고유 특성과 미를 살리며 찾아가는 문화선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한국무용, 가야금병창, 사물놀이, 그리고 민요 공연으로 병원과 요양원을 찾아 봉사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있는 국악회관의 자랑이다. 결성된지 8년이 되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소나눔'의

공연문의처 : 032-876-8364

홈페이지 : www.kukakhall.co.kr 이다.

▶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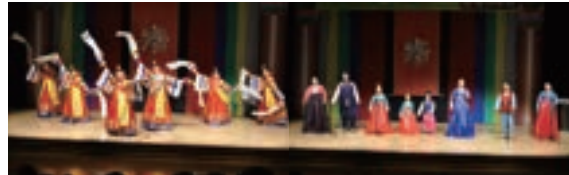
- 2013. 1. 11 / 천사의 집 요양원 / 한국무용, 민요공연
- 2013. 2. 8 / 천사의 집 요양원 / 민요공연
- 2013. 3. 29 / 천사의 집 요양원 / 한국무용, 민요공연
- 2013. 4. 1 / 승의 요양원 / 한국무용, 민요공연
- 2013. 4. 26 / 장수 요양원 / 민요공연
- 2013. 5. 3 / 인천사랑 노인요양원 / 한국무용, 민요공연
- 2013. 6. 4 / 장수요양원 / 민요공연
- 2013. 6. 7 / 천사의 집 요양원 / 한국무용, 민요공연

■ 제10회 국악사랑 내사랑

- ▶ 일 시 : 2013년 3월 30일(토) 오후 3시
- ▶ 장 소 : 인천국악회관 공연장
- ▶ 내 용 : 민요, 판소리, 가야금, 해금, 대금, 한국무용, 사물
- ▶ 목 적 : 인천지역의 유일한 국악배움터로서 인천 시민들에게 국악을 관람할 수 있는 자리

를 마련하고자 하며 국악교육의 문화공간으로서 국악회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함.

- ▶ 주 최 : 사)인천예총
- ▶ 주 관 : 사)인천국악협회
- ▶ 후 원 : 인천광역시



■ 42기 국악문화학교

국악문화학교는 국악교육을 통해 우리 소리의 소중함을 알고 건전한 취미생활도 함께 할 수 있는 국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를 통한 자기계발과 함께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 강의기간 : 2013년 7월 8일(월) ~ 9월 28일(토)

▶ 강좌과목 :

- 민요/장구 : 수 11:00 14:00 19:00
- 판소리 : 화 17:00 19:00
- 가야금 : 수 10:00 / 목 18:00 / 토 14:00
- 거문고 : 화 19:30
- 해금 : 화 19:00 / 토 14:00
- 대금 : 월 · 목 19:00
- 모듬북 : 월 19:00
- 한국무용 : 수 15:00 17:00 19:00 / 금 16:00
- 단소 : 토 13:00
- 태평소 : 수 18:00
- 피리 : 수 18:00
- 선반설장고 : 수 10:00
- 풍물 : 금 19:00

▶ 수 강 료 : 3개월 70,000원~120,000원

▶ 문 의 처 : 032-876-8364

▶ 홈페이지 : www.kukakhall.co.kr



■ 제13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

▶일 시: 2013년 6월 22일~23일

▶장 소: 예선 - 인천국악회관

본선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사업내용

- 경연대회부문(예선 및 본선)

- 초등부: 민요, 현악, 관악, 판소리, 한국무용
- 중·고등부: 민요, 현악, 관악, 판소리, 한국무용
- 민요일반부: 민요에 한함
- 명인부: 민요명창(잡가), 기악, 판소리, 한국무용



■ 우리가락 우리마당 일요상설 공연 열쑈

▶일 시: 2013년 5월 12일 ~ 2013년 10월 6일

▶장 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송도 트라이볼

회수	일정	공연내용
9회	7월 7일	박윤정 명창과 함께하는 창극과 무용을 포함한 다양한 우리소리
10회	7월 14일	사물놀이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 공연
11회	7월 21일	인천신진국악단체 더류의 공연
12회	8월 18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민혜성 명창과 그의 제자들의 창극과 판소리 공연
13회	8월 25일	재즈트리오의 세련된 사운드에 자연스러운 국악기의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공연
14회	9월 1일	2010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젊은예술인상 성악판소리부문 판소리 명창 정상희의 공연
15회	9월 8일	21C 한국음악 프로젝트 2010년도 대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국악단체
16회	9월 15일	따뜻하고 아름다운 거문고 음악의 향연
17회	9월 22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이수자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수상한 판소리명창
18회	9월 29일	2011년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은상, 신진국악 실험무대 천차만별콘서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자유국악밴드
19회	10월 6일	아름다운 우리가락과 우리악기로 소통하는 공연
20회	10월 20일	2013 최고의 호응과 인기를 얻은 공연을 다시 한번,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축하 기념공연

■ 인천 춤길, 하늘을 여는 춤길

▶ 일 시

■ 2013년 5월 4일(토요일) 오후 3시

- 댄스 - 페이 댄스팩토리
- 살사 - 스타살사 팩토리
- 힙합 - 알핑키스트
- 방송댄스 - 아이코코

■ 2013년 5월 12일(일요일) 오후 3시

- 강혜은 전통무용프로젝트
- 김주성 이데아댄스컴퍼니
- 김윤경 엘림무용단

▶ 장 소: 인천 월미도 야외무대

▶ 내 용

- ‘2013 하늘을 여는 춤 길’은 생동하는 5월의 봄기운을 춤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사)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는 2013년 하늘을 여는 춤길은 2개의 파트로 나누어 실시했다.
- 5월 4일, ‘하늘을 여는 춤길’은 실용무용 공연으로 전 지회장이었던 안무가 박혜경이 이끄는 KADC(코리아 액션댄스컴퍼니)의 프로젝트 형태로 방송댄스, 댄스, 살사, 힙합 등 대중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5월 12일, ‘하늘을 여는 춤길’은 순수무용 공연으로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으로 ‘김주성 이데아 댄스컴퍼니’, ‘김윤경 엘림무용단’, ‘강혜은 전통무용 프로젝트’가 참가하여 5월 하늘을 춤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하였고, ‘연희컴퍼니 유희’의 공연 전 앞은반 공연은 흥겨운 가락으로 월미도를 흥으로 가득하게 해주었다.

■ 2013년 인천무용제(2013 WIZ WORLD DANCE FESTIVAL)

2013년 7월 12일 부터 7월 30일 까지 인천종합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경연과 비 경연을 통하여 18일간 열렸던 인천무용제의 대상은 JS무용단이 차지하여 순천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출전한다.



■ 『학산문학』 봄호(79집), 여름호(80호)

종래의 편집 체제를 혁신하여 매호 필진을 인천작가 외에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문인들을 엄선하여, 작품을 게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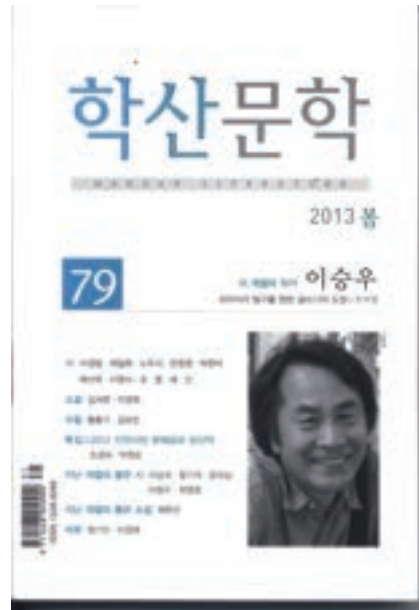
『학산문학』은 인천문협에서 연 4회 발간하는 계간 순수문학잡지로서 봄호(79집)는 2013년 3월 1일에 여름호(80호)는 6월 1일에 출판사 <미소기획>에서 발간하였다.

이번 봄호 제 79집은 이 계절의 작가로 문단의 중진 작가 ‘이승우의 문학강연<죄의식의 탐구를 향한 글쓰기의 도전>, 신작소설<없는 사람>, 자전소설<999>, 작가의 연보’와 ‘작품론<주지영>’을 실었다.

그 외 창작물로 신작시 9인선, 신작 단편소설 2인선, 신작 수필 2인선과, 특집으로 <인천시민 문예공모 당선작>과, 학산문학 선정 지난 계절의 우수 소설, 지난 계절의 우수 시 등을 수록하고, 리뷰에 시(정기인), 소설(이경재)을 게재하였다.

또한 여름호 제 80집은 학산문학 2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을 실었으며, 이 계절의 작가로 문단의 중진 작가 ‘김광규의 문학강연, 신작시, 자전시, 작가의 연보’와 ‘작품론(안서현)’을 실고 그 외 창작물로 신작시 10 인선, 신작 단편소설 3인선, 중편소설 1인선, 신작 수필 2인선과 동화 1인선을 실고, 각 호별로 학산문학 선정 지난 계절의 우수 소설, 지난 계절의 우수 시와 인천문인을 만나다. 등을 수록하여 각 호당 1,500부(전체 3,000부)를 발간하여 전국 작가 및 인천 시내 단체, 도서관, 문화원 등에 배포 하였다.

계간 『학산문학』은 지역 문학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단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바, 『학산문학』의 발간을 통해 인천 작가들 작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와 함께 독자들의 수준 높은 문화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될 것이며, 인천 문화의 새 지평을 여는 동시에 인천 잡지 문화의 품위를 향상시켜 전국 독자들에게 인천의 문학적 위상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 2013년 인천미술한마당축제 - dream, hanmadang, festival

▶일 시 : 2013년 5월 3일(금)~9일(목)
개막식 : 5월 4일(토) 오후 3시

▶장 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관 및 야외

▶주 최 :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주 관 : 2013년 인천미술 한마당축제 운영위원회

2013년 인천미술한마당축제가 5월 3일부터 5월 9일 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관 및 야외에서 진행되었다.

올해의 한마당축제는-dream, hanmadang, festival라는 타이틀로, 540여점이 출품된 작품전 외에 가훈 써주기, 케리커처 형식의 초상화 그려주기와 페이스 페인팅의 시민대상 봉사활동도 이루어졌다. 특히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전 참여와 미술을 통한 봉사활동은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10번째를 맞이하는 2013년의 한마당 작품전의 참

여작가 대부분이 일반시민과 미술을 배우기 시작한 입문자들로 미술의 영역확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외에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작가를 선정하고 시상하여 말 그대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 2013년 인천 국제아트페어

▶일 시 : 2013년 8월~12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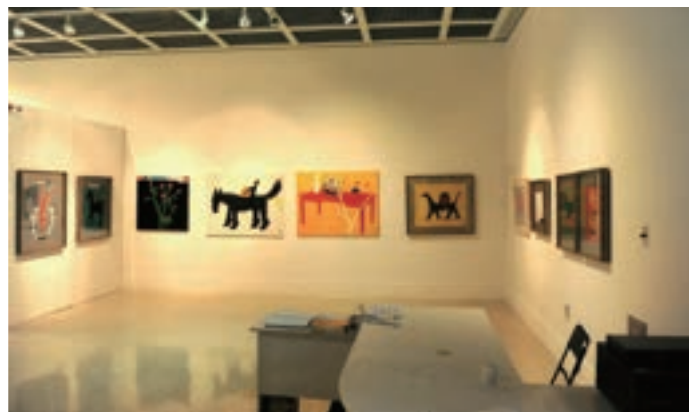
▶장 소 : 선광문화재단 갤러리 (신포동 소재)

▶주 최 :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주 관 : 2013년 인천 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회

2013년의 인천국제아트페어는 기존에 진행하였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한 부스전과는 형식을 달리하여 중형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선광문화재단 갤러리를 이용하여 매주 6~8명의 작가군이 개인 부스전을 오픈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시도되는 기획이며 장르별로 작가군을 구성 할 수도 있으며, 연령별, 작품유형별로도 작가구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정된 기간중 선광문화재단 갤러리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는 소그룹의 부스전이 오픈되며 시민과 미술애호가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소장하고픈 작품에 대한 가격정보와 작품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사진작가협회



■ 제62차 인천전국사진강좌

3월 16일 인천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본회회원, 전국에서 참가한 수강 사진애호인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사진강좌가 있었다.

■ 제8회 인천전국사진공모전

3월 15일 제8회 인천전국사진공모전 심사가 있었다. 출품수 1112점으로 성황을 이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금상 최석구의 7공주를 비롯 200여점이 입상입선작으로 선정되어 4월 13일 시상식이 있었다.



■ 제21회 한·중 친선 국제사진 교류전

2013년 5월 25일 예충인천문화회관 제1, 2전시실에서 인천사진작가협회와 중국친진시촬영가협회간의 한중친선국제사진교류전 개막식이 있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친진시촬영가협회 비서장을 비롯 중국대표단 6명이 내한했고 참여작가는 중국작가 50명, 인천작가 65명이 참여하였다.

■ 2013 6대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사진교류전

▶ 전시기간 : 2013. 5. 27 ~ 5. 31

▶ 초대장소 : 2013. 5. 27 오후5시

울산광역시청 1층전시실

2013 새로운시선이라는 타이틀로 6대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의 사진작가들이 울산광역시에서 전시하였다.

■ 제22회 인천전국세미누드촬영대회

청학폴장에서 제22회 인천전국세미누드촬영대회가 개최되었다.

유경선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을 비롯 이사진, 전국 지회지부장 등이 다수 참석하였고, 전국의 사진애호가 9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 제49회 인천광역시사진대전

제49회 인천광역시사진대전 심사가 인천예충제1전시실에서 2013년 6월 14일(월)에 있었다. 7명의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결과 대상 수상작은 없었고, 우수상에 최종일의 <구성>, 강연옥의 <대화>가 선정되었고 초대작가상에는 손석구의 주차장4개가 선정되었다.

인천연극협회



■ 제31회 인천항구연극제

- ▶ 일 시 : 2012년 3월 23일(토) ~ 4월 21일(일)
- ▶ 장 소 : 문학시어터
- ▶ 주 최 :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연극협회인천광역시지회
- ▶ 주 관 : (사)한국연극협회인천광역시지회
- ▶ 후 원 : 인천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내 용
 - 인천연극예술 분야의 대표적 축제로 그동안 인천연극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이바지 해 왔던 인천연극제를 확대 개편하여 연극예술의 진수를 선보이고자 한다.
 - 이번 연극제는 창작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천의 연극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축제의 장을 만든다.

▶ 참가극단 및 일정

일 정	극 단 명	작 품 명	비 고
3.23~24(토, 일)	보아스	검정고무신 작-위기훈	창작
3.27~28(수, 목)	연만사	어느날 우연히 작-버나드슬레이드	비경연
3.30~31(토, 일)	십년후	벼락 작-박상우	창작
4. 3~ 4(수, 목)	산만	어제처럼 작-김선찬	창작초연
4. 6~ 7(토, 일)	놀이와 축제	우두미 가는 길 작-오성근	창작

4.10~11(수, 목)	피어나	왕손의 망명 작-오성근	창작초연
4.13~14(토, 일)	태풍	오두석의 귀가 작-김문광	창작
4.20~21(토, 일)	한무대	무화와 꽃 피었네 작-진윤영	창작초연

■ 우수레퍼토리 공연

- ▶ 주 최 : (사)인천예총
- ▶ 주 관 : (사)인천연극협회
- ▶ 후 원 : 인천광역시
- ▶ 사업기간 : 2013년 5월 4일(토) ~ 6월 23일(일)
- ▶ 목 적
 - 인천 내 우수작품을 초청하여 공연함으로써 인천시민에게 공연관람기회 제공.
 - 문학경기장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살려 스포츠인과 관객들에게 공연장을 알리고 연극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적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리하고자 함.

▶ 참가극단 및 일정

일 정	극 단 명	작 품 명	비 고
5.4~7	해오름	꿈을 파는 가게-신문공주 작-김진수	가족극
5.10~12	꼬마세상	달곰이의 모험 작-김일준	가족극
5.23~26	태풍	오두석의 귀가 작-김문광	
6.6~9	보아스	행복해, 장유씨 작-조아라	
6.13~16	산만	어제처럼 작-김선찬	
6.20~23	미르	미드나이트 포장마차 작-이재상	

■ 2013 아름다운 인천실현 “다문화 예술제”

- ▶ 일 시 : 2013년 6월 29일(토) 오후 3시
- ▶ 장 소 : 월미 문화의 거리(공연무대)
- ▶ 주 최 : 사)한국연예예술인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 ▶ 협 찬 : 티브로이드(ICN), 인천일보, 인천타임즈, 연예정보지, 한국푸른섬터신문사.

글로벌화의 첫째 과제는 학문과 사회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의 형성에도 의의가 있다. 인천의 다문화 가족의 분포는 타 도시에 비하여 적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예술제(를 사) 연예예술인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에서 2013년 6월 29일, 월미문화의 거리에서 개최 다문화 가족들의 많은 호응과 관광객의 흥을 돋았다.

제1회 다문화 예술제는 지속적으로 풍부한 예산 속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관중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축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등 다문화 예술팀이 참여 의의를 드높혔다.



■ 2013, 천(天)지(地)해(海)인(人) 국, 관악 퍼포먼스 '살어리랏다, 인천'

인천의 바닷길 하늘길 하늘길 그리고 땅과 사람의 인본주의 사상을 드높일 '국, 관악 퍼포먼스 살어리랏다, 인천' 공연이 월미도 문화의 거리 공연무대에서 2013년 6월 30일(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주최, 주관은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인천



광역시지회에서 진행한 본 행사의 후원은

인천광역시와 사)인천예총이 하였으며 2013년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게임 개최 기념으로 대회기간중 성황리에 마쳤다.

인천을 주제로한 곡목을 선택 연예예술인협회 인천광역시지회의 RHAPSODY BIG BAND의 주옥같은 레파토리를 관중에게 선사하였으며 THE “流”의 민요연곡과 출연가수 전자현악그룹 ‘zenith’의 율동미 넘치는 연주로 관객의 호응을 십분 유도하여 휴일 월미도를 찾은 시민(관광객)을 즐겁게 하였다.

■ 2013년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2013년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행사가 열렸다. 연예예술협회 인천지회의 BIG BAND에 맞추어 개최된 본 행사는 축제 분위기로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에 일조하였다.

- ▶ 일 시 : 2013년 4월 30일(화) 17:00
- ▶ 장 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 주 최 : 인천광역시
- ▶ 참석대상 : 노조대표자 및 근로자, 가족, 시민



■ 2013 영화아카데미교실

- ▶사업기간: 2013년 3월~10월
- ▶사업내용: 영화영상교육과 단편영화 만들기
- ▶추진일정
 - 교육생모집 (2013년 3월)
 - 영화영상교육 (2011년 4월~5월, 매주 토요일)
 - 단편영화 만들기
 - 촬영...2013년 6월~8월
 - 편집...2013년 9월
 - 시사...2013년 10월 19일
- ▶기대효과
 - 2013년도 영화아카데미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2008~2011 영상촬영워크숍보다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영상예술교육콘텐츠를 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분야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으로 미래 인천영상문화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의 기초적인 교육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및 인천시민의날 기념 영화상영

- ▶사업기간: 2013년 10월 12일
- ▶사업장소: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 ▶사업목적
 -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시민 참여 영화상영.
 - 우수한 가족영화 상영으로 시민들의 문화 참여 창달.
 - 인천시민의 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주말의 퍼포먼스

■ 2013 송옥숙의만학교

- ▶사업기간: 2013년 3월 16일~12월 22일
- ▶사업내용
 - 400여 곳이 넘는 인천의 초중고 학교에서 100여 명에 이르는 연기자들에게 다양하고 품질 높은 연기교육을 방과 후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

한다면 청소년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상당한 관심과 호응과 얻을 것입니다.

- 송옥숙의 “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연기자학생들은 2013년 12월 22일 연극공연을 통해 들어 연기하는 작품이 발표될 것이며 연기자로 자질이 풍부한 청소년들은 인천영화인협회에서 미래를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2013 한여름 밤의 별빛영화여행

- ▶기간: 2013년 6월 28일~8월 31일까지
(금,토요일 총10회 상영)
- ▶시간: 매주 금요일, 토요일 20:00~22:00
- ▶장소: 인천시 중구 영종도, 자유공원 야외무대
- ▶주최: 인천시 중구청
- ▶주관: 사)한국영화인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인천광역시
- ▶목적
 - 구.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생활.
 - 한국영화역사의 시초 인천시 중구의 위상제고.
 -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인천시 중구의 문화메카로 부상.
 - 여름철 가족단위의 관람객에게 다양한 영화 체험.



■ 제1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 ▶일 시: 2013년 5월 11일(토) 오후 5시
- ▶장 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출 연: 인천뉴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이종관)
- ▶협 연: 바이올린/박소민
소프라노/최해지
첼 로/이소연
소프라노/서은혜
- ▶특별출연: Comos트리오
(피아노/민은나
바이올린/김예솔
첼로/우미영)



■ 2013 팝스콘서트

- ▶일 시: 2013년 6월 4일(화) 오후 7시 30분
- ▶장 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출 연: 웨스트 윈드오케스트라(지휘자: 백종성)
연수구 드림스타트 브라스밴드
- ▶특별출연: 색소폰/이종열, 퓨전가수/전용구





■ 진달래, 고인돌 축제

4월 23일 ~ 5월 5일까지 진달래, 고인돌 축제가 강화 고인돌 광장에서 사)강화미협주체로 초상화 그려주기, 염색체험 등 많은 부대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 등대의집 후원 초대전

7월 6일 등대의집 후원 초대전이 전준희, 김인수, 신언일, 서정철, 길현수, 최정희, 김민욱 등 작가들의 작품 30여점을 가지고 이영엽 고문 선생님댁에서 성공리에 전시를 마쳤다.

1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3점의 작품이 판매가 되어 상당한 실적을 낳았다.

이에 이영엽 고문 선생님께서는 매년 전시를 열어 등대의집과 작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 하셨다.



■ 한, 중 문화교류 협약식

6월 10일 서울 강서구에서 한, 중 문화교류 협약식이 강화예총 전준희 회장님, 강화미술협회 지부장 신언일, 감사 김인수 선생님의 참석 하에 성공리에 마쳤다. 이에 양국의 원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약속을 다짐 하였다.

이에 첫 행사로 오는 8월 30일 내몽골 내에서 약 40여명의 작가를 초대하여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다.

■ 강화탐방 야외사생 인천화우회

3월 23일 강화 더리미 포구에서 강화 사생회 회원과 인천 화우회 회원들의 시무식을 가졌다.

올 일년 동안 강화 지역을 탐방 하면서 사생하여 연말에 강화 종합전시관에서 전시를 열기로 하였다.

인천 화우회 회원 40명, 강화 사생회 회원 20명 등이 서로 친목과 작품 성향에 관하여 토의 하면서 서로간의 역량을 발전 향상 시키기로 하였다.



2014년을 위하여

2013년 인천의 화두는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600년 그리고 실내 무도 아시안게임, 2014년 아시안게임이다.

새 정부가 문을 열며 땀 흘린 일도 여럿 있었지만 인천은 인천대로 2014년을 위한 예산문제로 범시민들이 모여 현안을 타개코자 노력했다. 모두가 ‘돈’이다. 제발 뜻한바 술술 잘 풀려야 할 것이다. 내 땅의 선량들이 정당을 떠나 공통의식을 가지고 분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기를 다시한번 간청 드린다.

제30차 ‘예총전국대표자대회’가 순천에서 개최되어 참석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기대만큼 풍부한 마음의 양식은 별무하다. 중앙 예총으로서 좀더 비전과 앞날의 이슈가 될 만한 프로젝트를 찾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대 정부를 향한 건의도 조금씩 서두를 일은 더욱더욱 아닌것 같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림의 미학이 요구될 일이다.

금번호에는 검여 유희강 선생님을 모셨다. 인천 서예계의 거목이셨던 초명강기한 모습을 떠올리며 예술 혼을 각자의 몸에 가두어 보는것은 어떨까.

“예술인천”을 사랑하는 독자제현의 여름나기에 무탈함을 빈다.

2013. 7. 15

(사)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회장 김재열